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34호
2022년 2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감사하는 마음'이 해로의 비결 ... 회혼식 치른 이종석 동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종석 동문(의대 54·가운데)이 지난 2월 5일 두레마을에서 회혼식(diamond wedding)을 치렀다. 의대와 문리대 54학번 동기생 네 부부가 이종석·정정남 부부의 결혼 6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관련기사=15면>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LA 개최 6월 23~26일 ... 건전한 성장 위한 안전 토의 본국 총동창회와도 교류·협력사업 확대

제 3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오는 6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LA에서 열린다. 행사는 24일(금) 오후 포럼과 함께 본격 개막된다. (www.PacificPalmsResort.com)

퍼시픽 팜스 리조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평의원들과 지부임원, 그리고 모교 동창회 임원 포함 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의원 회의는 미주 동창회 최고 의결기구로 매년 6월 개최된다.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 회장은 “이번 평의원 회의는 Community

Outreach를 포함, 동창회의 성장을 위한 안전들이 폭넓게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전·현직 회장님들, 종신이사님들, 원로선배님들, 또 특별히 관악연대 동문들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특히 본국의 서울대 총동창회와의 협력사업을 예로 꼽았다.

오는 3월 새로 선출되는 본국 총동창회장과 임원들을 평의원 회의에 초청해 구체적인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각각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두 동창회가 협력해 공동사업을 펼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주 동창회는 남가주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조지아 뉴잉글랜드 등지에 지부

동창회가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시간에 새로 동창회가 결성돼 모두 29개로 늘어났다.

장소: Pacific Palms Resort
One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91744

‘창업 멘토링’ 본 궤도 서울대 텔로팜 나파밸리 진출

미주 동창회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창업 멘토링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올랐다. 동창회에서 브레인네트워크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홍택 박사(공대 60·UCLA 석좌교수)는 서울대가 창업한 텔로팜(Telofarm·동창회보 11월호 참조)이 크로프트 팜스 등 나파밸리의 대규모 농장 8곳과 계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스마트 농업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텔로팜은 초소형 센서

를 식물에 직접 장착해 수액이나 영양의 흐름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수집, 분석해 물을 절약하고 발육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물 부족이 심각한 캘리포니아에서는 텔로 팜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텔로팜의 수주는 미주 동문들의 마케팅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 성공사례는 6월 열리는 평의원 회의에서 자세히 발표될 예정이다.

snuaa.org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꿨습니다.
관련기사=5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학도병에서 세계적 과학자로 ‘우뚛’ 송창원 박사 ... 한국최초 ‘네이처’ 논문 게재

‘한국전 호국영웅’이자 재미원로 과학자인 송창원 박사를 만났다. 대면이 아닌 그의 자서전 ‘나는 6·25의 학도병, 그리고 과학자 송창원입니다’를 통해서다.

송 박사는 세계적인 방사선 생물학자로 암치료와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과학자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50여 년을 교수로 지내며 한인회장도 역임,

커뮤니티 봉사에도 적극적이었다.

회고록은 이미 절판돼 구할 길이 없었는데 미네소타 동창회의 차재호 회장(농생대 84)이 자신이 갖고 있는 책을 속달우편으로 보내줘 2월호에 실릴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송 박사의 회고록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70년 전 강원도 산골짜에서 내 몸에 들어온 불청객은 아직 몸 속에 박혀있다. 포탄 파편이 뚫고 들어온 자리는 바로 배꼽의 반대편 등이었는데 지금도 배꼽만한 크기의 상처가 있다. 일상생활에선 그다지 지장이 없지만 공항서 보안검색을 할 때면 파편이 나타나는 바람에 검사관들이 내 몸을 뒤지기 일쑤다.

요즘은 몇 년마다 X-선 촬영기로 파편의 위치를 점검하는데 그것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 혹시라도 내장을 다칠까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다. 70년 동안 내 몸 속에 머물고 있는 파편은 이제 내 몸의 일부라고 느껴진다.”

1952년 8월 나는 제대명령을 받았다. 전선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2년 여의 군 복무를 마치고 군복을 벗었을 때 나는 갓 20살을 넘긴 청년이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에 올라 눈을 감으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쳤다.

내 고향은 강원도 춘천이다. 중학교(지금의 중·고교) 6학년이 되고나서 얼마 후 6·25 전쟁이 터졌다. 학도병에 자원입대한 나는 부대를 따라 함경도 원산까지 진격했다. 이왕이면 장교가 되고 싶어 육군종합학교에 지원, 합격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소위 계급장을 달게 됐다.

종합학교는 만 20세가 넘어야 지원할 수 있었는데 학력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다. 당시 내 나이는 불과 18세. 학교도 졸업못했으니 자격미달이었다. 그런데도 나이와 학력을 속여 장교후보생이 된 것이다. 그것도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에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부산의 육군종합학교에 가 2개월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25기 동기생들은 임관하자마자 최일선에 배치됐다. ‘소모품’이나 다름없어 희생이 무척 컸다.

나는 3사단 대전차중대 소대장이 돼 강원도 현리 전투에 투입됐다. 30여 명의 소대원들 가운데 나 보다 어린 병사들은 없었다. 그래도 내 나이가 24살이라고 능청맞게 거짓말을 했다.

첫 전투는 적군이 숨어있는 물레방앗간에 대전차 바주카포를 쏘는 것이었다. “제 1분, 물레방앗간에 발사!” 내 명령이 떨어지자 “캉!” 하는 폭발음이 계곡사이로 울려 퍼졌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나의 첫 전투였다.

그러나 얼마안가 인민군과 중공군에 포위돼 위급한 상황에 내몰렸다. ‘참호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No atheists in foxholes)’는 말은 이래서 나왔지 싶



미네소타 대학 교수시절의 송창원 박사. 1957년 서울문리대 화학과 11회로 졸업한 뒤 국비유학생이 돼 미국에 왔다.



소대장 시절의 송창원 박사. 송 박사가 수훈한 각종 참전 기장들. 맨 오른쪽이 2010년 받은 호국영웅장이다.



몸 속 파편 제거 못해 공항서 늘 ‘곤욕’ 방사선 생물학 연구, 암 퇴치에 매진

다. 나는 마음 속으로 두 손을 모아 빌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속히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소서.”

갑자기 5~6발의 포탄이 주변에 떨어졌다. 그때 허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며 피가 솟았다. “최 중사~” 선임하사를 애타게 찾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곁에 있었는데 한 순간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초연이 슬고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으로 시작하는 ‘비목’이란 가곡이 있는데 그 노래 주인공의 무덤에는 비목이라도 세워졌지만 내 옆에서 쓰러진 선임하사는 이름도 없는 깊은 계곡에서 무덤은커녕 비목도 없이 외로이 잠들어 있다.

나 역시 위생병의 응급처치를 받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됐다. 나는 고지에 두 고온 부하들이 걱정돼 견딜 수가 없었다. 군의관에게 다시 일선으로 보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 야전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해가며 수술을 받았지만 파편 제거에 실패했다. 몸 속 깊이 박혀 위치를 모르겠고 또 척추 바로 옆이어서 수술도 불가능하다며 상처를 그대로 봉합하고 말았다. 파편이 지금까지 내 몸에 박혀있게 된 배경이다.

1952년 8월 결국 군복을 벗게 됐다. 나는 원주 교외의 작은 촌마을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고지에서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 대신 산마을에서 책을 들고 대학입시 준비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전쟁터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다 보니 머리는 텅 비어버렸지만 나는 움츠러들지 않기로 했다. 교사로 일하며 5개월 동안 촌음을 아껴가며 공부에 전념했다. 운이 좋았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던지 운명의 길이 열려 나는 서울대 문리대 화학과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나에게 과학자의 꿈을 심어준 건 아니려니하게도 소학교 시절 담임이었던 아사카 선생이었다. 일본이 패망해 귀국하게 된 선생은 ‘어린이의 과학’이란 일본 월간지 1년치를 내게 작별선물로 주며 격려했다. 내가 과학인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잡지를 보며 전기모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광석수신기(라디오)를 제작해 방송을 듣기도 했다.

‘평생의 반려자’ 주재광을 만나게 된 것도 화학이 인연이 됐다. 선배의 소개로 당시 이화여대 화학과 학생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다. 아내의 화학과 절친 중 한 분의 아들이 지금 야권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나는 대한민국 제 1호 국비 원자력 유학생으로 선발돼 아이오와 대학에서 방사선 생물학을 전공했다. 한국에서 온 ‘촌놈’인 내가 백인들을 따라가려면, 아니 그들보다 우수한 연구자가 되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목적지를 향해 남들이 걸어갈 때 나는 뛰어갔다. 지난 60년을 매일 12시간 이상 연구에 몰두했고 하루 24시간은 늘 모자랐다.

나는 인류 모두에게 두려운 질환인 암 치료법 연구에 인생을 걸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만도 300편에 달한다. 지난 1968년에는 피부줄기세포의 DNA 합성연구를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국인 최초의 ‘네이처’ 논문이다.

학계는 나를 학회 회장으로 선출하기도 했고, 수많은 상장과 감사장을 주었고, 많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초대했고, 미국과 해외 학회 및 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연사로 초청했다. 10여 년 전 대학서 은퇴는 했지만 내 연구활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과학자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가지 시련과 좌절도 많았다. 그러나 만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또다시 과학자의 길을 택할 것이다.



지난 2월 5일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단합된 동창회를 다짐하고 있다. 이날 최용준 동문이 이임하고 박제환 동문이 신임회장으로, 김경무 동문이 차기회장으로 취임했다.

남가주 총동창회 박제환 신임회장 “가족캠핑 등 ‘포스트 코로나’ 활동에 집중할 터”



박제환 신임회장



김경무 차기회장

재정보고에 이어 최용준 이임회장이 한 귀희, 김용진, 최경석(사대 80), 손영아(음대 85) 동문 등 함께 수고한 임원진에 공로패를 증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 회장은 특히 최용준 동문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중책을 맡아 회장직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치하했다.(관련기사=19면)

“지난해 제약조건이 많은 상황에서도 자선음악회, 골프 대회, 원로선배초청 오찬, 송년 대잔치 등 여러 굵직한 행사들을 완벽하게 치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새 임원진도 동문회의의 전통을 살려가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동문회의의 목적은 무엇보다 회원간의 친목, 그리고 소속감”이라고 강조한 박 회장은 “동문간에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동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김경무(공대 69) 동문도 “선후배를 아우르는 화목한 동창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제환 · 차기회장 김경무 · 재무국장 장준(인문대 85) · 문화위원장 김양희(음대 77) · 대외협력위원장 김인종(농생대 74) · 감사 최경석, 이윤종(미대 92).
취재=홍선례(음대 70)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월 5일 LA 한인타운의 용궁에서 열렸다. 박제환(문리대 75)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이제 (팬데믹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올해는 지난 2년 여 동안 못갔던 할리웃볼을 갈 것이며, 가을에는 가족 캠핑도 떠나 코로나 이전 대자연의 숲속에서 마음껏 누렸던 동문가족들의 밝은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 임원진 20여 명만 초대해 간소하게 치렀다. 김용진(수의대 92) 총무국장의 사업보고, 한귀희(미대 68) 상임고문의

“꼭 닦았지요?”

이명상 동문의 ‘Trump Stone’ 화제 만발

“트럼프가 돌을 닦았는지, 돌이 트럼프를 닦았는지. 정말 헛갈리네요.”

얼마전 남가주 문리대 동문회 웹사이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를 꼭 닦았은 돌이 나란히 실려 사진을 본 동문들이 배꼽을 잡았다.

이명상 동문(문리대 58)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이 동문에 따르면 13년 전 LA인근의 캐년 컨트리 골프장이 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을 때 집 근처에서 우연히 이 돌을 발견, 보관하고 있었다.

“처음엔 유대인들의 율법교사 ‘랍비’를 닦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사진을 보는 순간 트럼프와 판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정말 웃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이 동문은 보관하고 있는 수석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트럼프 스톤(Trump Stone)’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원하면 기증할 의사가 있다며 그 역시 한바탕 웃어제쳤다.

명복을 빕니다.

‘박정희의 꿈’ 백곰 미사일 개발 홍용식 박사 ... 워싱턴 DC에서

1970년대 국산 미사일 로켓 ‘백곰’ 개발을 이끌었던 항공우주공학계의 선구자 홍용식 박사(공대 51)가 지난 1월 24일 워싱턴 DC 자택에서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천재 로봇 과학자로 유명한 데니스 홍 UCLA 교수가 고인의 둘째 아들이다.

지난해 말 갑작스레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홍 박사는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왔다.

차남 데니스 홍 교수는 “아버지는 (죽음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으며, 삶에 후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고 말했다.

고인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경기도를 졸업하고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미국에 유학해 어번대를 거쳐 일리노이대와 워싱턴대에서 박사를 받았다. 이후 보잉사의 연구원으로 일하던 홍 박사는 197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미사일 개발과 과학자 유치에 호응해 귀국,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근무했다.

자서전 ‘나는 그때 있었다’에서 홍 박사는 “미 공군의 우주국을 지원하는 연구소인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

션에서 군사용 우주왕복선과 ICBM에 관한 일을 하고 있던 1972년,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심문택 소장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며 “당시 심 소장과 함께 유럽의 방위산업계와 연구소 등을 시찰한 후 ADD 부소장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홍 박사는 당시 미사일개발 목표는 사정거리 500km, 탄두중량 500kg이었으며, 최종목표가 핵탄두를 운반하는 로켓 개발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핵무기 탑재용 미사일 로켓 개발은 미국의 압력으로 무산됐다.

그가 개발에 참여했던 백곰 미사일은 1978년 박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사거리 200km를 날았다. 당시 세계 7번째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이었다. 백곰 미사일은 이후 연구가 이어져 오늘날 한무 미사일로 진화했다.

홍 박사는 부인 민병희 여사와의 슬하에 2남 1녀를 뒀다.

데니스 홍 교수외에 장남 준 홍은 미국 국방연구원 부원장, 딸 줄리 홍은 국립암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홍용식 박사(가운데)가 딸 줄리와 차남 데니스 홍 교수를 안고 있다. (사진=데니스 홍 페이스북)

용준석 동문 (의대 46)

용준석 동문(의대 46)이 지난해 12월 28일 9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고 미망인 팻 용 여사가 알려왔다. 용 동문과 거의 60년을 해로했다

고 밝힌 미망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다섯 자녀를 두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늘 동창회보를 즐겨 읽었다”고 밝혔다.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로 오래 근무한 용 동문은 버지니아주 브리스톨로 이주, 여생을 보냈다.

동창회보 광고협찬 후원금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미주 각 지역에 살고 계신 동문 여러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유일한 인쇄매체입니다. 매달 거의 1만부를 인쇄 배포하고 있어 동창회의 재정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갖고 계신 동문들이 광고로 협찬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시는 종신이사 회비는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 300만 달러 모금 캠페인 계정에 별도 적립되고 있어 동창회 운영비용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일반 후원금으로 도와주시면 동창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내=27면 참조)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

미국 도움으로 글로벌 의료강국된 한국 라오스에서 '서울 프로젝트'로 되갚아 서울대, 비안티안에 4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설

수니사 리(19). 미국여자체조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소수계 여성이다. 지난해 7월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체조 개인종합 금메달을 따내 세상을 놀라게 한 장본인이다. 이어 열린 이단평행봉 결선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2관왕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체조 여제' 시몬 바일스의 중도기권으로 위기를 맞았던 미국팀을 구해냈다.

수니사는 라오스의 소수인종 몽(Hmong)족 출신이다. 몽족의 수난기는 베트남 전쟁이 낳은 비극과 맞닿는다.

미국의 용병으로 쓰여졌다가 버림을 받은 몽족이 미국 여자체조팀을 버랑 끝에서 구해냈으니 주류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가 된 수니사 리의 성공은 미국내 소수인종들에게도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고, 열정을 쫓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영감을 줬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라오스 중부와 북부 산악지역에 살고 있었던 몽족은 심폐기능이 발달해 산악전에 최적화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미 중앙정보국(CIA)이 라오스 북부의 통청에 비밀기지를 세우고 몽족을 지원, 게릴라 요원으로 전력화했다. 용맹한 몽족은 북베트남의 공산 월맹군과 비정규군사조직인 베트남공을 공격해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미군의 철수로 베트남전이 끝나자 몽족을 비롯한 친미 라오스 인사들은 졸지에 난민 처지에 몰렸으나 2만여 명이 탈출, 미네소타로 이주해 자리를 잡았다. 수니사가 태어난 곳이 바로 미네소타다.

몽족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네소타와는 인연이 깊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네소타 출신 병사들은 어림잡아 10만 여명. 이 가운데 1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휴전이 되자 한국의 전쟁고아 2만여 명



▲ 서울대 의료진이 지난 2013년 라오스 국립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현지 의료인들에게 의료장비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 지난해 일본 도쿄 올림픽 여자체조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라오스 몽족 출신의 수니사 리.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서울 프로젝트' 덕분에 수니사의 라오스 친인척들도 의료혜택을 받게 됐다.

몽족 등 라오스 난민 미네소타에 정착 한국전쟁 고아들도 2만여 명 입양돼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선진국 진입해

이 미네소타 가정에 입양돼 새 동지를 틀었다.

미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한국을 재건할 목적으로 '미네소타 프로젝트'(1월호 참조)를 시행했다. 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을 시도한 것. 미국은 '선택과 집중'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대를 '선택'하고는 '집중'해서 도움을 줬다. 서울대 의대와 농대, 공대 출신을 뽑게는 4개월, 길게는 4년여를 지도하고 훈련시켜 낙후된 한국을 일으켜 세우게 했다.

1955년부터 1961년까지 7년 동안 모두 226명의 젊은 교수들이 연수를 받았다. 또 60여 명에 이르는 미네소타대학 자문관들이 한국에 상주하면서 대학교육체계 전반을 지원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덕분에 서울의대 교수진과 조교 77명이 미네소타의대와 부속병원에서 현대의학을 배웠고, 이것이 한국의료의 밑바탕이 됐다.

서울대 병원 김연수 원장은 "60여 년 전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의료가 없었을지 모른다"며

"이제는 우리의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되돌려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원조를 받은 한국이 이제 몽족이 살고 있는 나라 라오스에 1,000억 짜리 병원을 만들어 돌려준다. 한국과 라오스는 미네소타를 축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한다. 24개 진료과와 특수 클리닉, 시뮬레이션 센터가 들어간다. 라오스의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짓게 되는데 이 병원이 라오스 최초의 국립대 병원이 된다.

총 사업비용은 1,000억 원 가량.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전액 제공한다.

서울대 병원은 라오스 의료진(의사 24명, 간호사 8명)을 한국으로 데려와 교육한다. 개원 후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의 의료진이 현지에 파견돼 교육한다. 병원 설립부터 안정적 운영까지 약 7년 동안 도우미 역할을 맡는다.

서울대는 2010~2020년 서울대 출신의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유지를 기리는 '이종욱-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라오스 의료진 82명을 서울대 병원으로 초청해 교육했고, 현지에 출장가서 97명을 교육했다. 이 사업의 연장선

에서 라오스 국립대 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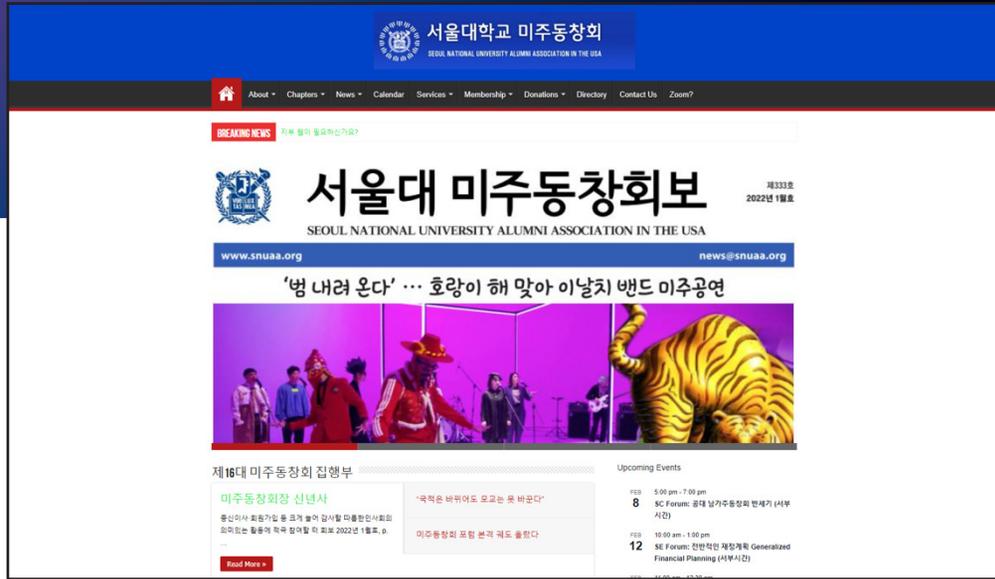
반세기 전 미국으로부터 의료원조를 받은 처지였던 한국이 이전 개도국에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의료원조국이 된 것이다.

수니사 리의 라오스내 친인척들도 '서울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선진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네소타 프로젝트'에서 '서울 프로젝트'가 시행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반세기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하다. **동창회보 취재팀**

snuaa.org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꿨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강조 'snuatube'는 동문 운영 동영상 수록 '인기' 웹사이트 없는 지부 동창회에 무료 제작해줘

미주 동창회 공식 웹사이트(www.sn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지난 3개월여에 걸쳐 진행한 이번 리뉴얼은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동창회 종신이사인 유시영 동문(문리대 68·커네티컷)은 “지난 10여 년 간 (사용하기에) 불편했던 홈페이지를 갈아엎었다”며 “16대 동창회의 큰 업적 중 하나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재편된 사이트를 보고 감동했다는 뜻이겠지요.

이번 웹사이트 재단장은 오로지 한홍택 박사(공대 60·UCLA 석좌교수)의 뜻과 수고의 결실입니다. 한 박사는 “그동안 snuaa.org와 씨름하다가 이제야 거의 완성된 것 같다”고 말하며 “더 좋은 아이디어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라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보다 편리해진 동창회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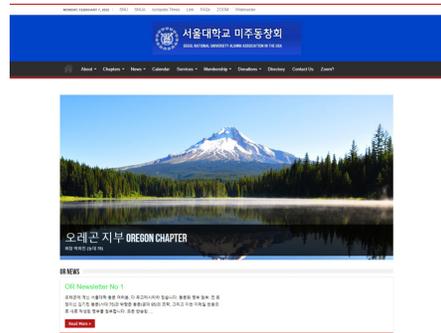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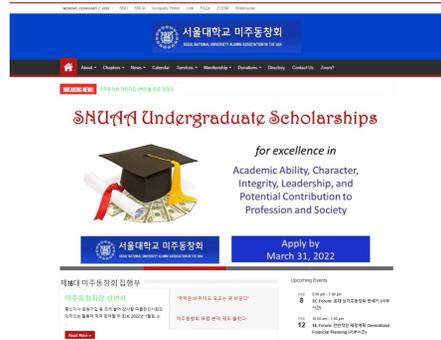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breaking news)'가 신설됐습니다. 모금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이어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미주 동창회가 한인커뮤니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펼치는 장학금 프로젝트, 서울대 국제체계강좌, 매달 진행하는 포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지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어 시각적으로도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또다른 코너는 'upcoming events'입니다. 계획된 행사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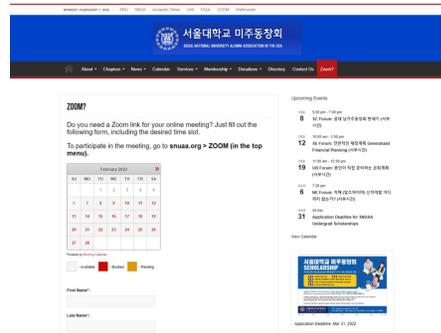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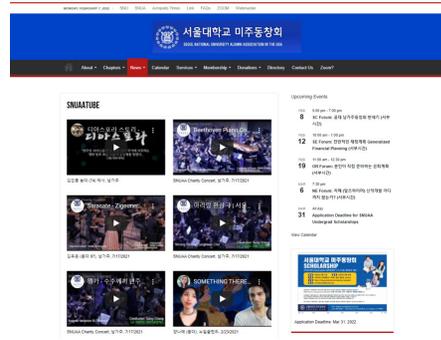
'about'을 클릭하면 16대 회장단과 임원진, 종신이사, 역대회장 명단과 함께

교가와 회칙, 그리고 미주 동창회 최고의 결기구인 평의원 회의가 소개됩니다. 'chapters'는 남가주 동창회를 비롯해 미 전국 29개 지부의 회장단, 연락처 등



창회에 웹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 드립니다. 1차로 오레곤과 미시간 지부에 웹페이지를 제작해 드렸습니다.

특히 'news'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띄니



젊이 필요한 동문 무상 이용할 수 있어 광고도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 게재해

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관악연대, 의대 동문회, 공대 동문회, 한국 총동창회 등을 클릭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사이트가 없는 지부 동

다. 2009년부터 2022년 1월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놨습니다. '젊이' 보다는 '디지틀'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다른 야심작은 'snuatube'입니다. 동문들이 운영하거나 만든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공개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농대 '샌드페블즈'의 50주년 기념곡 '디아스포라'를 포함해 음대 동문들의 명연주를 공짜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술전시회(art exhibits), 각 지역 동창회의 행사(events video), 인터뷰 동영상(interview videos), 게시판(community board) 등이 소개됩니다.

웹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서비스'입니다. 장학금 프로젝트도 서비스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오는 6월 개최되는 평의원 회의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발전기금이나 동창회비, 후원금 등 기부도 이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보에 실린 광고는 웹사이트(directory)를 통해서도 동문들에게 소개됩니다. 이제부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군데서 동시에 광고할 수 있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오미크론 등 코비드-19의 변종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비대면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줌(Zoom)을 통한 화상 대화가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이 필요한 동문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웹사이트의 Zoom을 클릭해 낱짜를 찍으면 가용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 바뀐 snuaa.org에 동문들의 화끈한 접속을 바랍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웹마스터(webmaster@snu-aa.org)에게 연락하십시오.

나의 스승, 나의 멘토 ... 고마움 평생 잊지 못해 장가가라며 박봉털어 데이트 비용까지 대준 은사님 어머니께 선물 보내준 박사논문 지도교수 사모님



우규환
화학 교육 60 · 모교 명예교수

학생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품을 수 있게 칭찬을 많이 하고, 좌절과 한숨으로 의욕을 저하시키며, 분노와 적개심까지도 갖게 할 수 있는 힐난 등은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와 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때로는 전자에 속하는 것 같다가 때로는 후자의 과오를 밥먹듯하니 이것이 선생된 자의 고충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식을 키우며 한 평생을 선생과 부모된 입장에서 사물을 지켜보며, 생각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 봅니다.

훌륭한 지도자와 인격자인 스승과 좋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종말의 세기에 '군사부일체'라는 전통 윤리사상을 구태의연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유한 우리의 것을 다시 찾는 절실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대학동창 S 총장은 M 전문대학 총장으로 재임시 교직원 서도반을 만들어 운영했는데 "施惠無念 受恩莫忘"이라는 글을 써서 제주도 남원읍장에게 선물하였다고 합니다. 남원읍장이 고맙게 여겨서 그 글씨를 해변에 비석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베풀었던 것은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는 잊지 않도록 하라." 이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살아오면서 베풀었던 것은 거의 없지만 꼭 기록해두고 싶은 은혜가 몇가지 있어 여기에 적어보고자 합니다.

내가 대학원을 다닐 때(66~67) 그러니까 벌써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옛날이야기가 됩니다. 생화학 전공의 박인

원 교수님이 벨지움에서 학위를 마치고 문리대 화학과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사범대에 재직하는동안 입시 면접 때마다 응시자에게 묻곤 했습니다. "왜 사범대에 지원했습니까?" 놀랍게도 두가지로 대답이 나누어 지는데, 한 부류는 본인이 만났던 훌륭한 선생님의 본을 따라서 자기도 그러한 교사가 되겠다는 포부이고, 다른 부류는 자기가 만났던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선생의 모습을 정리 청산하고, 본인은 학생을 이해하는 좋은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결심으로 사범대 진학을 원한다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선생이 전자이고 어떤 선생이 후자이겠습니까? 감수성 많은 청소년들을 대할 때에 내 자식처럼 관대함으로,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선생인 우리가 내 벨는 한마디 말로 인하여 내 학생, 내 자녀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박인원 화학과 교수, 과분한 은혜 디트로이트대 토쿠히로 교수 부인 겨울장갑과 목도리 등 선물 보내



원 학생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신 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지나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노총각 대학원생을 측은하게 여기셨던지 꼭 한번 만나보라고 강권하시다 시피 하셨습니다. 손수 데이트 비용까지 마련해 주셔서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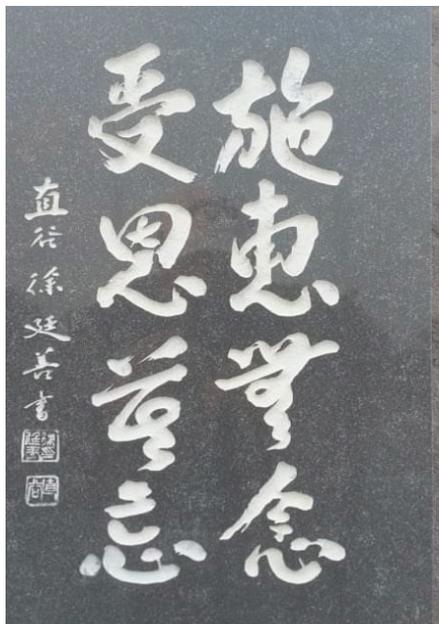
그 당시 대학원 수강생이 3~4명 뿐이었지만 어떻게 내가 행운아로 뽑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수 월급이나 강사료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시절인데도 말입니다. 그 여학생과의 만남은 한번으로 끝났지만 특별히 베풀어주신 박 교수님의 은혜를 두고 두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의 박사학위(Univ. of Detroit) 지도교수이신 토쿠히로 타다시 교수님은 매년 크리스마스 디너에 대학원생들을 초청해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부인이신 레이코 여사께서는 한국에 계시는 나의 어머니의 안부와 나이를 물어 보시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몇년 후 내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기쁜 모습으로 "너의 지도교수 부인이 선물을 보내주셨다"며 겨울 장갑과 목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또 감격했습니다. 남편이 지도하는 학생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 혹은 친언니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씨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인원 교수님과 레이코 여사님의 모습을 이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날 그들을 반갑게 만나서 옛날에 받은 은혜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 박인원 화학과 교수.(왼쪽) 대학원 시절 내게 데이트비용까지 대주는 등 남다른 은혜를 베풀었다.
▲ 디트로이트대의 토쿠히로 교수.(오른쪽) 성탄절 파티를 열어주며 유학생 신분인 나를 격려해줬다.

◀ '베풀었던 것은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는 뜻. 이 글씨는 제주도 남원에 비석으로 세워져 있다.

원 교수님이 벨지움에서 학위를 마치고 문리대 화학과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분의 첫학기 강의 '핵산'을 들었는데 강의 내용은 별로 생각이 안나고, 선생님이 출강하시던 모 여대

Oak Bioinformatics 창업

신살에 문득 '나는 나의 주인인가' 회의 전공 살려 게놈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김량국
생물교육 92

안전망이 없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지출은 고정적인데 수입은 예측할 수 없는 삶. 계좌 잔고 \$0를 향해 가는 매일.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의 불꽃. 50살이 되어 시작한 인생을 건 승부. 학사, 석사, 박사를 모교에서 마치고 박사 후 연수과정(조지아텍)으로 미국에 온 것은 2005년이였다.

그 뒤 5년의 연수과정과 10년의 컨설턴트 생활. 차도 사고 집도 사며 생활의 기반을 쌓았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살기에 불편하지도 않았던 삶. 음악과 연극과 춤으로 무료하지 않게 살던 중 문득 50살이 된다는 걸 인식했다. 그리고, 내 마음 속 한 곳의 소리가 들렸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 William Ernest Henley
그 전까지는 평온했다.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낸 20대와 30대, 회사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낸 40대.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기초한 안정적인 생활.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과 큰 나무 속에서 무넛 무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면 행복했다.

그런 안정적인 생활이 끝나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2020년 후반이였다. 오랫동안 해오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끝나게 되었다는 것. 그 때 그 소리를 들은 것이다 - 나는 나의 주인인가?

윗선을 납득시키지 못하여 좌절되었던 아이디어들.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 추구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 그 순간 순간이 모여 마음 속의 불만이 되었고, 그 불만은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고 싶다는 욕구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이제 그 욕구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인생에 한번은 창업을 해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세상에 남기고 싶다.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한번은 쓰러질 정도로 원없이 춤추고 싶다. 나는 그렇게 창업을 결심했다.

창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무엇으로 창업할 것인가'였다. 여러 가지를 추구하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미 오랫동안 해 온 것 중에서 고르자.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게놈분석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은 언제 창업할 건가였다. 창업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금융적 절차에

전달하고 축복과 조언을 들었다. 그리고 당시의 프로젝트가 끝나는 2021년 2월에 회사를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회사의 형태와 이름을 정한 뒤 회사를 버지니아에 등록했다. 등록과정은 간단했다. 변호사 없이 직접 하였고 비용은 \$100이였다.

초기의 창업 생활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 일감을 조금 나누어 주었던 관계로 세발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창업자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돈을 벌려는 투자자, 일자리를 창출하

통해 내가 누울 자리를 충분히 보지 않고 발을 뻗으려 했었다는 걸 깨달았다. 시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제품을 만드는 마음가짐을 이 때 장착했다.

이렇게 컨설팅으로 생활비를 벌며 시장탐색과 제품개발을 하던 중, 이전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사가 바이오텍 회사로 인수되는데 합류할 수 있겠냐는 문의였다.

첫번째는 의리, 두번째는 세발자전거의 보조바퀴가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느끼던 공포 때문에 같이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언젠가는 다시 나간다는 양해가 된 상태에서 2021년 7월 새 회사로 들어가 낮에는 직원, 밤에는 창업자의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이중생활은 심신의 피로가 심했다. 그리고 한 번 경험한 자유의 맛이 점점 더 큰 열망을 만들었다. 몇 달 뒤 열망이 공포보다 커졌을 때 공포의 비합리성을 깨달았다.

마쳐야 할 일들이 있었으므로 이전 회사의 사장님과 상의하여 다시 한 번 축복 속에 연말에 나가기로 합의했다. 보조바퀴들은 이미 없어졌으므로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3년이 걸린다고 보고 집을 팔아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나는 직원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버렸다. 그 다음날 5시간을 운전해 도착한 숲 속의 통나무집. 4박 5일간 폭설 속에서 삶과 사업을 구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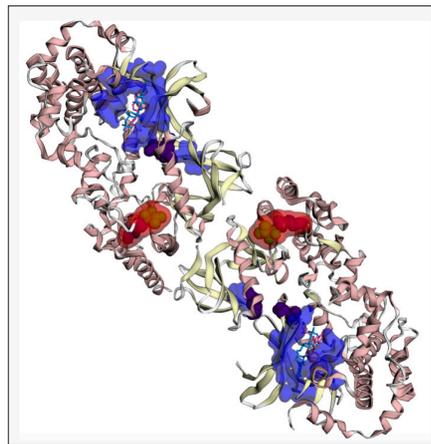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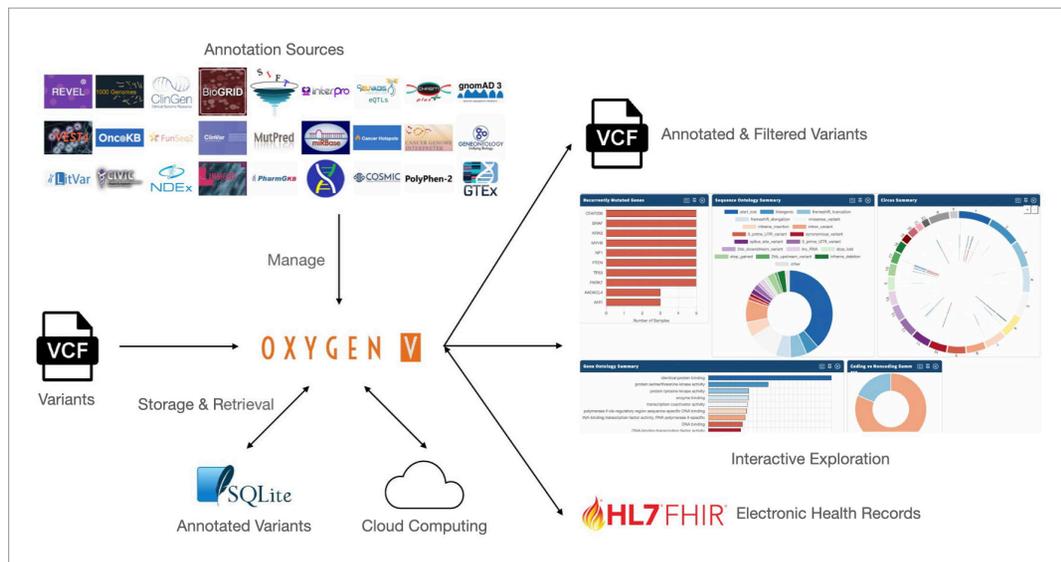
안전망이 없는 삶. 모아 놓은 돈을 까먹으며 통장 잔고 \$0를 향해 가는 매일. 그러나, 추락을 받아주는 것도 없지만 비상을 막는 것도 없다. 창업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내게는 자유였다.

추신 - 저는 미주동문회 워싱턴 디시지부에 가입하여 선배님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행복한 동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조언을 해 주신 선배님들, 집을 파는 과정에서 심적 물적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저의 회사는 Oak Bioinformatics LLC이며 bioinformatics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Oak Bioinformatics
8387C Leesburg Pike, #1030
Vienna, VA 22182
info@oakbioinformatics.com

정부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집 팔아 사업자금과 생활비 마련해 동문들의 조언·심적 도움 큰 힘 돼



Oxygen V는 유전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생명정보학 시스템 관리 기술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간편한 사용을, 시스템 관리에 익숙한 사용자에게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강력한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유전체 분석 데이터베이스와 도구를 편리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맞춤 분석 데이터베이스와 도구를 쉽게 추가할 수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대규모 유전체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 강력한 맞춤 필터링이 가능하다. 유전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전자건강기록과 연동되어 정밀의학 연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다음은 직원에서 창업자로의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과 저녁을 먹으며 창업의 의향을

려는 주정부,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연방정부. 이들이 다양한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중 하나인 버지니아 SBDC의 ICAP에 등록하여 린 스타트업을 익혔다. 이를

서울대 동문 어디에 살고 있나 ... 독자 심층분석

캘리포니아 32%, 뉴욕 · 뉴저지 17%, D.C. 수도권 9%

LA · 뉴욕 · 어바인 · 풀러튼 · 휴스턴 · 샌디에고 · 플러싱 · 포트리순

서울대 동문들은 미국 어느곳에 살고 있을까. 물론 자세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동창회보 구독자들의 주소를 분석해 보면 분포를 알 수 있다. 회보 독자는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 매달 1만부 가깝게 인쇄, 전국적으로 배포

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동문 부부도 적지 않다. 미주동창회 IT담당 국장인 심재호 동문(공대 75)이 조사,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서울대 동문들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 편집자 주.

각 주별 거주 분포

예상대로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구독자는 모두 2,861명.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원에만 2,139명, 샌프란시스코 등 베이 지역에 551명, 샌디에고 171명 등이었다.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뉴욕주로 850명으로 나타났다. 이웃해 있는 뉴저지는 663명이었다.

조사결과 캘리포니아와 뉴욕 · 뉴저지 두 지역이 전체 구독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리노이주 510명, 버지니아주 382명, 메릴랜드주 358명, 워싱턴주 246명 순이었다.

텍사스주는 모두 277명. 휴스턴(191명)과 달러스(86명) 등 두 도시에 밀집해 살고 있다.

이어 펜실베이니아 241명, 매사추세츠 235명, 조지아 233명, 미네소타 139명, 플로리다 107명, 오하이오 106명 순이었다.

이외에도 미시건 87명, 오레곤 68명, 콜로라도 61명, 하와이 61명, 코네티컷 54명, 노스 캐롤라이나 54명이 살고 있다.

40명 미만 거주 지역은 테네시 38명, 애리조나 36명, 인디애나 32명, 미주리 31명, 캔사스 27명, 위스콘신 27명, 워싱



지난해 8월 LA에서 열린 자선음악회.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과 겸해서 열린 공연에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300여 동문들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플로리다 밀집거주지는 '허난도' 라스베가스에도 14명이나 거주 와이오밍 · 아이다호는 1명도 없어

턴 D.C. 26명, 아이오와 23명, 유타 22명, 네바다 19명, 오클라호마 14명, 로드 아일랜드 14명, 앨라바마 13명, 델라웨어 12명, 네브라스카 9명, 웨스트 버지니아

9명, 알래스카 4명, 켄터키 4명, 버몬트 4명, 아칸소 3명, 몬태나 2명, 뉴햄프셔 2명, 뉴멕시코 2명, 사우스 캐롤라이나 2명 순이었다.

루이지애나와 메인, 미시시피, 노스 다코타 등 1명이 살고 있는 주도 네곳이 나왔다.

카리브해의 미국영토인 푸에르토리코(PR)와 버진 아일랜드(VI)에도 각각 1명의 동문이 회보를 구독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동문(독자)이 없는 곳은 와이오밍과 아이다호, 사우스 다코타 등 3개 주였다.

동북부의 뉴잉글랜드와 워싱턴 D.C.의 수도권, 중남부의 하틀랜드(Heartland)는 몇개 주가 연합해 동창회가 조직돼 있다.

뉴잉글랜드(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뉴햄프셔, 메인, 코네티컷, 버몬트 등 6개주) 거주 동문은 모두 318명. D.C.를 포함해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수도권은 76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틀랜드(아이오와, 미주리, 캔사스, 네브라스카, 아칸소, 오클라호마)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도시별 거주 분포

동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는 LA(414명)가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이어 뉴욕시(166명), 어바인(121명), 풀러튼(98명), 휴스턴(98명), 샌디에고(86명), 플러싱(85명), 포트 리(82명), 샌호



지난해 6월 열린 시카고 동창회의 야유회.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면 모임이어서 많은 동문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 친목을 다졌다.

세(74명), 시카고(67명) 순이었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5개 도시(LA, 어바인, 풀러튼, 샌디에고, 샌호세)가 톱 10 리스트에 올랐다.

LA에서 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어바인은 미국 최초의 계획도시(planned community)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최고의 학군으로 꼽힐만큼 교육에 특화된 도시여서 동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어바인 인근의 라구나 우즈에도 동문 44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미국 최대규모의 은퇴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LA에서 가까운 해변도시 실비치 은퇴마을(레저월드)에도 25명의 동문이 모여 살고 있다.

이외에도 남가주 지역에서 동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글렌데일(57명), 토런스(56명), 세리토스(51명), 라미라다(42명), 애너하임(39명), 샌프란시스코(38명), 팰로앨토(38명), 부에나파크(36명), 라크레센타(30명) 등이었다.

하와이의 호놀룰루에도 57명의 동문이 회보를 구독하고 있으며, 빅아일랜드의 카일루아-코나에도 동문이 살고 있다.

네바다주 동문 19명 가운데 14명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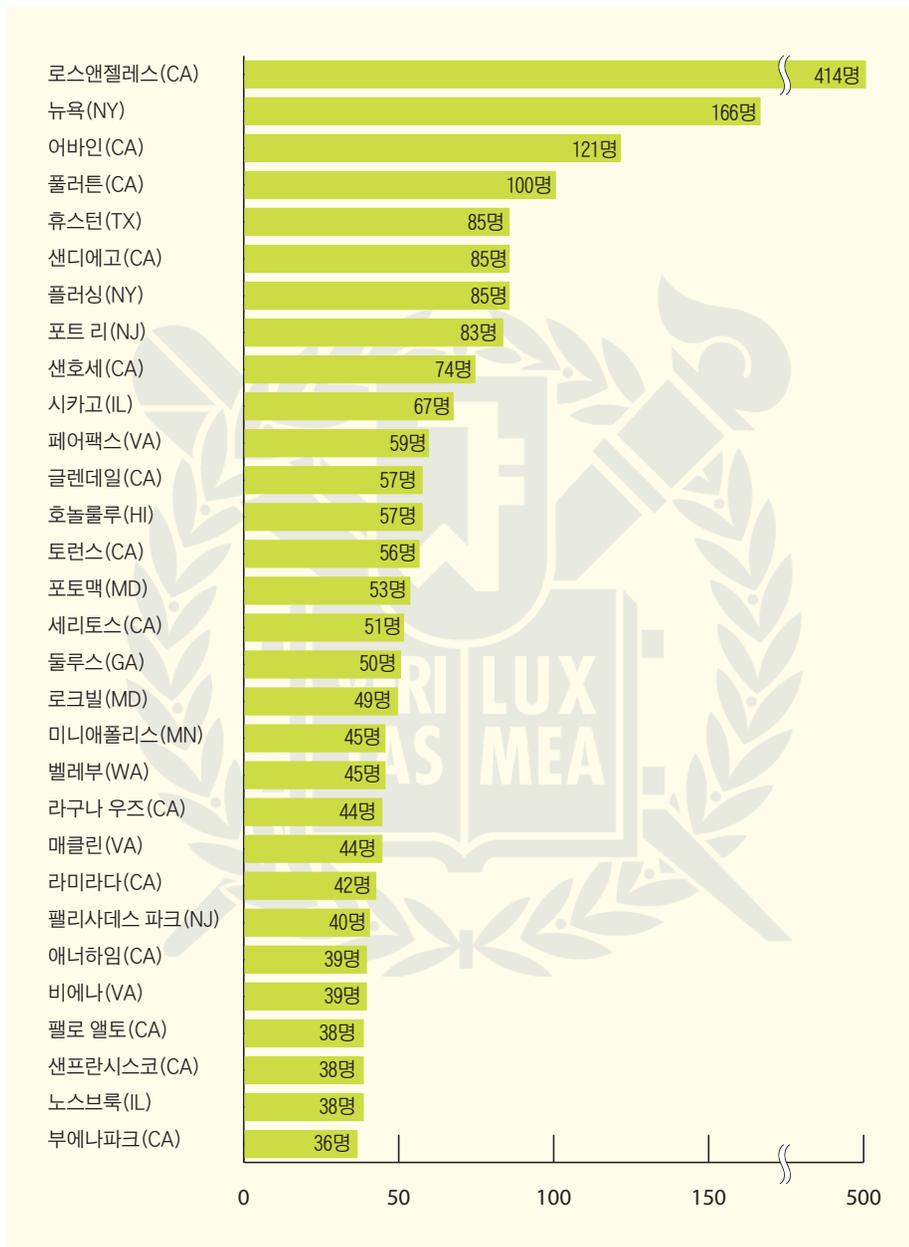
스베가스에 살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대부분 이곳으로 이주, 은퇴한 것으로 보인다. 모하비 사막에 위치해 있어 날씨가 건조하고 공기가 깨끗해 최근 들어 시니어들의 이주가 크게 늘고 있는 곳이다. 주변에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 국립공원(그랜드캐년 등)이 있어 시니어들이 은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동문 한 명이 살고 있는 도시도 적지 않다. 뉴욕주가 대표적인데 한 명이 살고 있는 곳이 무려 88개나 된다. 인접한 뉴저지도 82개로 나타났다. 이어 매사추세츠 59개 도시, 일리노이주 54개 도시 등 순이었다.

플로리다는 50개 주 가운데 가장 '특별'했다. 동문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마이애미나 올랜도가 아닌 허난도(Hernando). 플로리다 서쪽에 위치한 해변도시로 동문 15명이 살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윈더미어(Windermere)로 8명의 동문이 회보 구독자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30여 개 도시에 1~2명씩 흩어져 살고 있다.

LA나 뉴욕처럼 동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없어 플로리다는 동창회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문 거주 Top 30 도시



지난해 10월말 열린 66학번 이전 원로선배초청 오찬 모임. 참석자들이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

1940~1948 학번 35명이나 100세 넘는 동문도... 막내는 2012 학번

이번 조사로 1940년대 학번 동문들이 35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 원로는 뉴욕에 살고 있는 농대 출신 동문으로 1940 학번으로 조사됐다. 학번대로라면 올해 100세가 넘는데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없어 생존여부는 즉각 확인할 수 없었다.

역시 뉴욕의 의대 출신 동문이 1943학번으로 나와있다. 올해 98세다.

이외에도 1945 학번은 4명(의대

2, 약대, 공대), 1946 학번은 5명(의대, 법대, 문리대, 간호대, 음대)으로 나왔다.

1947 학번은 7명(공대 2, 의대 2, 법대 2, 간호대), 1948 학번 역시 7명(공대 2, 문리대 2, 법대, 의대, 음대)이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학번은 모두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젊은 세대의 흡수가 동창회의 제1 과제로 떠올랐다. 최연소 학번은 LA에 살고 있는 동문으로 2012년에 입학했다.



홍석관 동문 (사대 46)

별한 경우다. 처음엔 현역군인은 자격이 없어 입학시험 응시를 거부당했는데 다음날

홍 동문은 1925년 생으로 남가주에서 최고령으로 꼽힌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그는 해방 후 군복무 시절 사대에 입학한 특

친구 제대증을 빌려 제출, 합격해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6·25가 터지자 7사단 소속 수색소대장으로 전선에 투입됐다. 양구 전투에서 공을 세워 '호국영웅' 기장을 받았다.

육군부관학교 교육부 학술부장을 지내며 군사심리학을 가르친 엘리트 장교 출신이다. 군복을 벗은 후엔 기독교 방송국(CBS)에 취업, 편성국장을 지냈다.

도미 후 종교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홍 동문은 칼빈 신학교에서 종교심리학을 강의했다.

2002년부터 최근까지 LA 한인회 수석 카운슬러로 20년 동안 봉사했다.

단과대는 공대가 가장 많아 의대·음대·간호대·상대 순

구독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출신 단과대학을 밝히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출신대학을 밝힌 구독자 가운데 가장 많은 대학은 공대(547명)다. 이어 의대(518명), 음대(282명), 문리대(276명), 간호대(201명), 상대(198명), 사대(178명), 농대(167명), 법대(148명), 미대(120명), 약대(107명), 치대(106명), 수의대(100명) 순이었다.

공대 출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로 모두 322명으로 집계됐다. UCLA, UC 버클리, 스탠퍼드, 칼텍 등 유명 공과대학이 있어 공대출신

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는 캘리포니아(134명)와 뉴욕(104명)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음대는 그러나 캘리포니아(169명)가 뉴욕(69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뉴욕 쪽이 비교적 우위를 점한 대학은 미대. 48명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어 캘리포니아(47명)를 간발의 차이로 눌렀다.

약대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각각 31명으로 같았다. 치대는 캘리포니아(75명)가 가장 많았다. 수의대 역시 캘리포니아(45명)가 뉴욕(11명)을 크게 제쳤다.

“멋지게 살고 싶어 미국으로 날라왔어 ~”

농대 샌드페블즈 50주년 기념 ‘디아스포라’

김영민 작곡 · 김인종 작사 ... 이민자들의 스토리 담아

“멋지게 살고 싶어 미국으로 날라왔어
800달러 들고왔지 캘리포니아 USA
스노우보딩 좋아서 눈 속에서 살았어 우리는 디아스포라
내 딸은 평창 올림픽 금메달이야
지금은 이땅 태극기 휘날리지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요즘 유튜브에서 한 인 이민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라는 노래의 한구절이다(유튜브 ‘디아스포라 스토리’). 당초 9절에 이르며 세계에 퍼져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스토리를 담았는데 현재는 첫 번째 판으로 1·2·3절을 노래한다.

이 노래의 작사 작곡가들이 서울대 미주동문들이다. 서울대 농대(현재는 농생대로 불린다)의 72학번 김영민이 작곡, 74학번 김인종이 작사했다. 두 동문은 서울농대의 전통 있는 그룹사운드 샌드페블즈(Sand Pebbles) 출신이다. 김영민이 2대에서 1st 기타, 김인종이 4대에서 1st 기타를 각각 맡았다.

샌드페블즈는 6대(76학번)에 이르러서는 제1회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해 ‘나 어떡해’라는 자작곡으로 대상을 거머 쥐며 서울대생들이 공부만 잘하는 평생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50대 이어간 260여 명의 멤버들

이 샌드페블즈가 올해로 50주년, 즉 1년도 거르지 않고 50년 동안 새 후배들로 계속 ‘학생 판따라’를 이어갔고 올해로 50대까지 내려간 것이다. 1970년 윤장배(베이스), 김동만(기타), 장세권(기타), 정학상(색소폰·키보드), 주대명(보컬), 이남묵(드럼) 5명이 창단을 한 것이 52년을 이어가며 2022년에 50대 샌드페블즈에 이른 것이다. 멤버는 이제 260여 명에 달한다.

그 기념으로 올해 CD를 제작, 발매하기로 했는데 미주팀도 한 곡을 넣으려고 요청이 왔다. 샌드페블즈 미주팀이란 미국으로 이민을 온 멤버들을 말하며 공수균(2대 보컬), 조경희(2대 기타), 이학진(2대 드럼), 김영민(2,3대 기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악기와 노래를 놓지 않는다. 1대 70학번 윤장배(왼쪽)와 정학상.



폭풍의 하드록 2인조 Toxic.

타), 손치훈(4대 베이스), 김인종(4대 기타), 이상호(10대 베이스), 임대현(25대 보컬) 등이 미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대표해서 이번에 제작된 곡이 ‘디아스포라’이다.

“알맞은 사랑애기보다는 전세계로 뻗어나가 코리아로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같은 이민자로서 전해 보고 싶었다.” 작사자의 말이다.

작곡가 김영민은 한국에서도 유명그룹 음악 활동을 많이 했다. 광고기획사에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스타킹은 반달표’ 등 70년대, 80년대 유행하던 광고송들을 제작해 광고 대상도 여러차례 받은 재주꾼이다.

왜 농대에 재주꾼들이 모였나

샌드페블즈에는 재주꾼들이 많다. 김창훈(5대 베이스)과 김창완(서울농대 72), 김창익(고려대) 3형제가 ‘산울림’ 그룹사운드를 구성해 한국 록 음악



샌드페블즈 40주년 기념 출연한 산울림의 김창완(72학번, 왼쪽)과 김창훈(75학번).



장발로 무장한 25대의 공연모습.

의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했다. ‘나 어떡해’는 김창훈이 작사, 작곡을 해 김영민의 편곡으로 빛을 낸 곡이다.

1대 김동만의 아들 김정우는 2010년대 한국 록그룹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기타 드림만의 2인조 하드록 ‘Toxic’의 리드 기타리스트 겸 보컬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기타를 들고 샌드페블즈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고 록 무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1985년에는 13대 멤버들이 유니세프 가요제에서 ‘넌 영원한 소녀’로 금상을 수상했다. 이때의 보컬이 역대 샌드페블즈에서 가장 가창력이 뛰어났다는 ‘김성수’. 그는 ‘집으로 가자’같은 주옥같은 복음성가를 남기고 일찍 하늘나라로 갔다.

샌드페블즈는 대학 1학년때 멤버들이 오디션을 통해 구성돼 1년간 활동한 뒤, 2학년이 되면서 후배들에게 장비와 ‘실력’을 모두 물려주며 후배들을 키운다.

이 과정에서 선후배들 간의 ‘군대 문화’같은 유대관계가 이어졌다. SM의 이수만씨도 학창시절부터 또래의 샌드페블즈와 깊은 친분을 유지했었다.

왜 농대에서 이런 재주꾼들이 많이 나왔을까. 농대 출신들은 스스로 안다. 수원 서둔동 캠퍼스의 문화와 ‘끼있는 아이들’이 그 이유라고들 한다. 아늑하고 아름다운 캠퍼스, 뒷동네 딸기 농장들, 넓은 수목림의 울창한 나무들, 목장, 그리고 집을 떠나 의무적인 기숙사 생활에서의 갖가지 사연 등.

특히 70년대 학번들은 이런 놀이터에서 여러 기발한 생활방식을 즐겼었고, 주유야음(낮부터 술, 밤에도 술)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캠퍼스의 풍속도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여학생들이 대거 멤버로 진출하면서 각 대마다 1,2명씩의 여학생들이 선발됐다. 신입 멤버 선발도 현재는 농생대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하는 학생들이면 모두 오디션을 통해 선발이 될 수 있다.

샌드페블즈는 군함이름

그런데 왜 ‘Sand Pebbles’라는 이름이 됐을까? 창단멤버들의 말을 빌면 1966년의 명작 영화 ‘San Pablo’에 나오는 배 이름 The Sand Pebbles에서 따온 이름이란이다. 스티브 맥퀸이 남주연상을 탄 이 영화는 양쯔강에서 모택동과 장개석의 군대 사이에서 싸우는 미 해군 군함의 스토리이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 다만 ‘샌드페블즈’는 군함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샌드페블즈의 미주동문들이 그 군함의 50주년을 맞아 출시한 ‘디아스포라’가 한국역사의 새로운 원동력으로서의 이민자들의 스토리들을 담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글=김인종(농생대 74)

‘조선의 힙합’ ‘진정한 K-팝’ ‘판소리의 재해석’ 이날치 밴드가 내려온다 (Leenalchi)



손화영
음대 국악과 94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 장립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중략)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쪽 찢어지고 / 몸은 얼송덜송 꼬리는 잔뜩 /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이 도래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한국, 한민족을 상징한다. 한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단군신화에서 곰과 함께 등장하는 호랑이는 유구한 역사와 뿌리 깊은 전통 안에서 벽사(饑邪)의 상징이자 한민족과 한반도를 수호하는 신수(神獸)의 상징이었다. 이렇듯 호랑이는 한반도 지도는 물론 여러 민속화와 설화에서도 등장하는데, 때로는 용맹함의 상징으로 때로는 해학적인 모습으로도 등장한다.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송덜송한게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별주부가 수로만리를 아래턱으로 밟고 나와 아래턱이 뻗뻗해져 토끼를 부른다는 것이 ‘토’자를 ‘호’자로 부르니 점점산중의 호랑이는 생원 소리를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들고 산을 달려 내려가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린 것이다. 우리 전통 예술, 판소리 수궁가의 범 내려오는 대목이다.

전 세계 유일의 1인 오페라 판소리는 완창에 몇 시간이 걸린다. 현존하는 판소리 다섯마당 중 유일하게 동물을 소재로 우리가 잘 아는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한 수궁가는 그 길이가 장장 세 시간에 달한다.

어느 날 남해 용왕은 자신의 병에 토끼의 간을 유일한 약이라는 것을 알고

수궁 대신들에게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 명하는데, 영리한 토끼는 꾀를 내어 자신의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한다. 자라와 함께 다시 육지로 돌아온 토끼는 육지에 이르자마자 자라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숲속으로 달아난다.

수궁에서 육지로, 다시 수궁을 거쳐 육지에 이르는 작품의 공간에 용왕과 토끼라는 강자와 약자의 대립 관계로 반전을 거듭하는 지략담을 담아 긴장과 흥미, 쾌감까지 한 작품 안에 담은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이다.

하지만 소리꾼과 청중이 긴 시간을 함께 버티며 음악을 귀로 들어 뼈에 새긴다는 판소리는 시대가 변하며 작품성과 예술성은 차치하고 기성세대들은 고루하고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

게 했다.

이날치 밴드는 서울대 출신의 네 명의 소리꾼 권송희, 신유진, 안이호, 이나라와 드럼의 이철희, 베이스의 장영규와 정중엽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조선의 명창 이날치의 이름을 오마주하여 이름 지었다.

이 젊은 소리꾼들은 자신들의 음악에 대해 국악의 세계화라는 거창한 명분보다는 그저 누구나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기를 표방한다. 그래서 길고 긴 전통 판소리 수궁가의 일부를 떼어 박자를 편집하고 가사를 빠르게 반복함으로 젊은 세대들이 복직하는 흥대 클럽을 들썩들썩 신나게 떼를 지어 노래하는 폐창으로 달군다.

또 단아한 전통 한복 대신 한복을 모

한 시도는 각국의 MZ 세대로부터 ‘힙하다’는 찬사가 쏟아지게 했다.

판소리는 조선 시대에 여러 사람이 모인 놀이판에 소리꾼과 청중이 대화하며 구성진 이야기를 풀어가던 대중음악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중음악은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로 팝이나 랩, 록이나 힙합 등 다양한 문화 전반에 걸친 상업적 음악으로만 남아있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 음악은 더는 대중음악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즐기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판소리는 누구나 특별한 지식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이 아닌 예술 음악으로 남아있다.

대중음악은 다수의 익명 대중들에게 쉽게 향유될 수 있어야 비로소 대중음악이 될 수 있다. 이날치 밴드는 ‘범 내려온다’에서 보듯 예술성을 지닌 전통 예술에 오락성과 유행성과 같은 현대 대중음악의 특징을 잘 버무렸다.

그 현명한 시도 덕분에 정통 콘서트가 아닌 대중적인 클럽에서 또래의 젊은이들과 노래로, 춤으로 제대로 한판 흥겹게 같이 논다. 마치 조선 시대의 소리꾼이 떠들썩한 놀이판에 자리 잡고 청중이 넣는 추임새로 함께 울고 웃으며 소리를 이어간 것처럼 말이다.

당시 북을 치던 고수의 역할은 밴드의 드럼 연주자가, 추임새를 넣던 청중은 오늘날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고 휘몰아치듯 빠르게 이어지는 가사를 소리꾼과 함께 노래한다.

이날치 밴드의 매력적인 시도는 전통 예술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오는 6월 LA 공연을 필두로 북미 전역을 21세기 판소리로 물들인다. 호랑이해를 맞아 그들을 세상에 알린 ‘범 내려온다’가 드높은 기세로 온천지를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이곳 미국을 울리기 바라며, 신명 나는 멋진 무대를 응원한다.

“범 내려온다, 얼썩!”

손화영은
프랑스 월드뮤직 페스티벌 참가
마린 심포니 쇼케이스 가야금 연주
UCSC 세계음악작곡세미나 초청

‘수궁가’ 중 별주부가 호랑이 만나는 ‘범 내려온다’로 공전의 대히트 전통예술에 오락성 버무려 대중화



▶이날치 밴드의 수궁가 공연 장면.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합동공연을 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전원 서울대 출신의 보컬, 왼쪽부터 안이호, 권송희, 이나라, 신유진.

며 점차 외면당하고 있다.

2020년, 우리 전통 예술 판소리는 ‘이날치 밴드’라는 범상치 않은 이름의 젊은 소리꾼들에 의해 재탄생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전 세계인을 열광하

티브로 한 독특한 의상을 입고 노래하며, 붉은 트레이닝 복에 옛날 양반들이 쓰던 갓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의 의상으로 감각적인 춤을 추는 댄서들과 함께한다. 이렇듯 그들의 기발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 권위 김광수 하버드대 교수 한국서 3·1 문화상 수상 ‘영예’ 이식 수술로 파킨슨병 퇴치에 기여한 공로 인정돼

뉴잉글랜드 동창회에 새해 들어 첫 경사가 났다. 동문인 김광수 교수(하버드대 의대·자연대 73)가 한국서 3·1 문화상(자연과학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김 교수는 파킨슨병을 퇴치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1 문화상은 3·1 운동의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올해가 63회째다. 자연과학을 비롯해 인문·사회과학 부문, 기술·공학 부문, 예술 부문 등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사들을 선정,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은 3월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다.

김 교수는 지난 2020년 환자의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만드는 ‘유도만능줄기세포’ (iPS)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파킨슨병의 임상치료에 성공, 관심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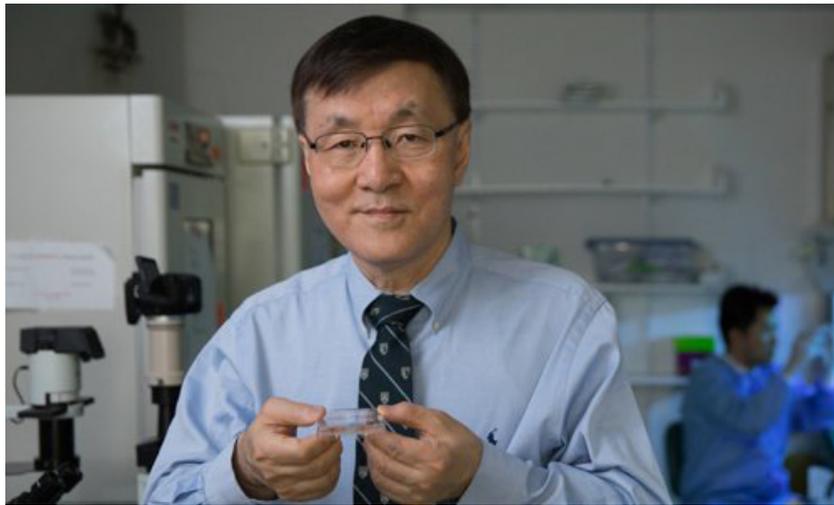
도파민 신경세포 변형

김 교수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 본인의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변형해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임상치료에 성공한 것이다.

치매·뇌졸중과 함께 3대 만성 퇴행성 뇌 신경계 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은 환자가 세계적으로 600만~1,000만 명에 이른다. 미국에서만도 1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킨슨병은 지난 2017년 74세를 일기로 타계한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은퇴 후 앓았던 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신경 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사멸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근육의 떨림, 느린 움직임, 신체경직, 보행·언어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맞춤형 줄기세포로 임상치료 성공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에도 실려 동창회에도 꾸준히 참석, 후배 격려



김광수 교수가 연구실에서 줄기세포배양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킨슨병을 맞춤형 줄기세포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체세포를 안정적으로 줄기세포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도파민 세포로 분화시켜 뇌에 이식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고효율로 진행되어야 하며 유해성이나 부작용이 없어야 성공할 수 있다.

면역체계 거부반응 없어

김 교수는 20여 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로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69세 파킨슨병 환자에게 도파민 신경세포를 면역체계의 거부반응 없이 작용하도록 뇌에 깊숙이 주입하는 이식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2년간 다양한 후속 테스트를 거쳐 임상치료에 최종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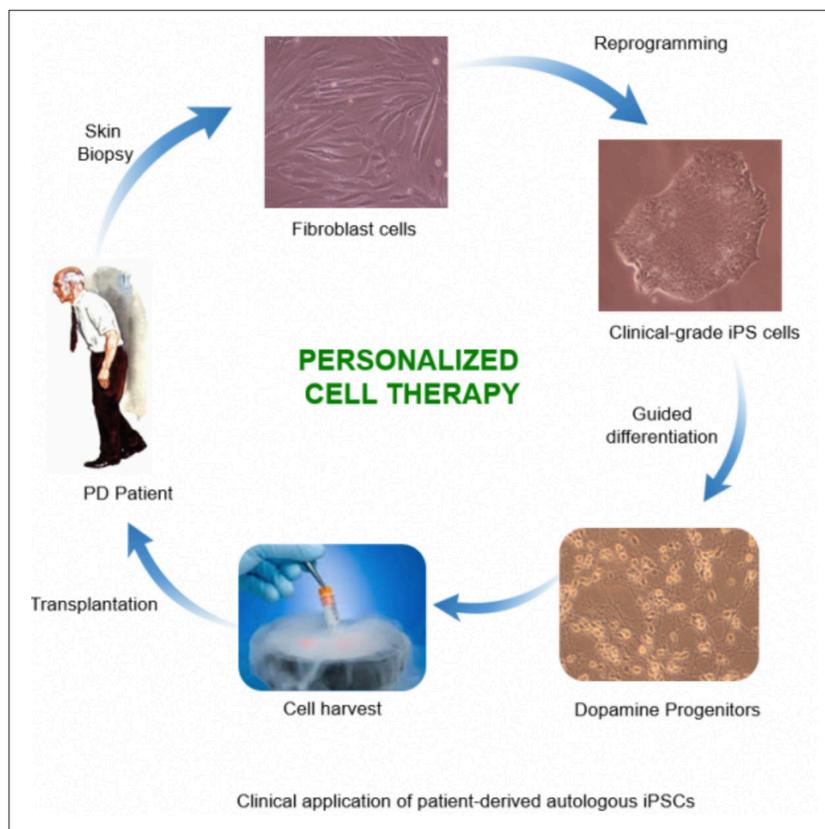
환자는 면역체계의 거부반응없이 구두끈을 묶을 수 있게 됐고, 수영이나 자전거타기 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능력을 회복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연구 치료결과를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과학계에선 김 교수의 연구가 여러 종류의 난치병 치료에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교수는 동창회 모임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동문이다. 올해부터는 장학위원장의 정책까지 맡았다.

특히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관악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동창회 활성화에 앞장 서고 있다.

취재=김유경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맞춤형 줄기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법. <사진=하버드대 의대>



미주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이 납부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동창회 활성화 및 동창회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보는 이제 월간발행부수 1만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동문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회비 및 후원금 납부양식=27면>

SNU Int'l Summer Institute 서울대 국제하계강좌 학생모집

수강신청 마감 5월 7~9일, 학점 인정돼
기숙사 제공, 동문자녀엔 20% 감면

서울대학교가 매년 여름 실시하는 국제하계강좌(SNU ISI) 프로그램이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5주 과정으로 열린다.

대상은 해외 대학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이다. 그러나 올 가을 대학진학이 확정된 고등학교 12학년 졸업예정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대의 국제하계강좌는 올해가 15회째로 전원 관악캠퍼스 기숙사에 머무르며 학점을 취득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대 교수진과 해외초빙교수들이 인문사회, 자연과학, 엔지니어링, 한국학 등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며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서울대의 국제하계강좌는 지금까지 전세계 2,000 여 학

생들이 참가하는 등 수강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공과목은 기후변화와 글로벌 식량안보, 산업공학, 수학, 미중 무역전쟁 등 20여 개로 3학점(45시간 이수)이 부여된다.

일반선택과목은 모두 11개로 컴퓨터 사이언스, 팬데믹 위기와 글로벌 보건 정책,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 디지털 시대의 경제학 등의 강의를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한국어 강좌와 한국예술 등을 수강하면 2학점(30시간)을 취득할 수 있다.

강의는 주 3일(월, 수, 목) 진행된다. 수업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비대면(online)으로도 진행된다.

서울대의 하계강좌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외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해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열리고 있는 서울대 국제하계강좌 수업 장면. 전세계에서 수강생들이 몰려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주고 있다. 대학 측은 여름방학동안 학점취득은 물론 세계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친교를 맺을 수 있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한국체류 중 드라마 촬영지와 문화유적지 답사, k-팝 프로그램 견학, 요리클래스, 한옥 관광, DMZ 방문 등의 과외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수강신청 마감은 5월 7~9일. 한국과 미국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협정을 맺고 있어 별도로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대학 측은 서울대 동문자녀들에게 수업료 2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히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s://summer.snu.ac.kr/> 문의: summer@snu.ac.kr

‘중증 시각장애’ 강민영씨 5급공채 합격 고시 사상 최초... 교육행정직 수석까지 ‘겹경사’



5급공채 시험에 합격한 중증시각장애인 강민영 동문. 왼쪽은 어린 시절 모습이다.

5급 공채(옛 행정고시) 역사 73년 만에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합격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교육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26살 강민영 씨.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선천성 시각장애로 전맹인 민영 씨는 교육행정 부문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5급 채용은 별도의 장애인 전형이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쟁한다.

민영 씨가 그 어렵다는 고시에 도전하고 결국 승리하도록 도운 인생 최고의 조력자는 다름아닌 그의 ‘엄마’다.

엄마가 기억하는 어린 딸은 책을 참 좋아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민영 씨의 책사랑은 남달랐다고 한다. 대형마

트에 가면 보통 장난감 코너에 가서 장난감을 사달라는 아이들이 많은데, 민영 씨는 책 파는 곳으로 갔다는 것. “책이 진열된 큰 책장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서서 ‘엄마 이 책 다 설명해줘’ 이러면서 집을 안 가요.”

엄마는 민영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던 20여년 전에 얼마나 점자책을 구하기 어려웠는지를 떠올렸다. 국내에는 특히 점자로 된 동화책이 거의 없었다.

책을 읽고 싶다고 조르는 자식에게 책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엄마는, 자신이 직접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자식이 책을 읽고 싶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엄마가 동

화책 글자 하나하나를 타이핑을 쳐 문서를 만들어, 복지관 등 점자를 변환해주는 곳에 가서 의뢰해야 책 한 권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독수리타법으로 동화책을 점자책으로 만들던 엄마는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 시험까지 손수 점자책을 만들어줘야 했다. 합격 직후 민영 씨는 공개인터뷰에서 “이번 5급 공채 합격에도 교재와 자료 대부분을 부모님께서 스캔하고 편집해 만들어주셨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민영이가 걸어온 근 30여 년 동안 우리 사회 역시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었다시피 했던 시각장애인 지원이 많이 확대됐죠. 그럼에도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딸이 걱정됩니다. 학교는 늦어도 조금 기다려주지만, 삶의 현장은 기다림이 없잖아요. 보지 못하는 환경을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점자로 읽으려면 남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엄마로서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느리더라도 우리 딸은 꼭 해낼 겁니다.”

책을 읽고 싶다는 딸 호소에 엄마가 직접 점자책 만들어

“민영이가 2019년부터 시험을 준비했는데 연이어 불합격했어요. 남들이 다 안될거라는 어려운 시험에 도전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올해 마지막으로 해 보고 그만하자고 딸을 다독였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소리와 손가락 끝 촉각에만 의지해 공부해요. 너무 열심히 점자책을 읽으니 지문이 다 닳을 정도였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딸을 보기가 엄마로서 안쓰럽습니다.”

세상을 못 보는 대신, 세상을 ‘읽어’ 알고 싶어 했던 딸, 그렇지만 부족한 점자책과 시설. 분명 뼈아픈 현실 지적이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엄마는 더 멀리 내다봤다.

민영 씨는 “시각장애인으로 여러 입시들을 거쳐 오면서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누군가에게는 온 가족이 매달려야 가능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배움의 의지는 있지만 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영 씨의 꿈은 부모가 모든 책들을 타이핑해 점자책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들도 쉽게 공부하고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에 기부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주요 기금 소개

만만한 기부 (선한 인재 장학금)

‘만만한 기부’ 캠페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연360만원)을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입니다.

든든한 기부 (연구기금)

‘든든한 기부’는 세계적인 연구 수준에 근접해 있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문화관 리모델링기금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서 미래 한국문화 발전의 책임과 지역사회의 소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 리모델링 및 증개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 모금액

\$15,579,906

2010. 4. ~ 2021. 12. 납입기준

2021년 모금액

\$3,344,113

2021. 1. ~ 2021. 12. 납입기준

2021년 미주재단 기부자 (USD)

2021. 1. 1. ~ 12. 31. 납입기준

김성열 전후자	1,000,000	유형규	20,000	서영숙	1,000
주종광 허지영	350,135	Chun Huh	10,000	유희선	1,000
고고광선 양남주	237,919	박민식 박금옥	10,000	이성길	1,000
Han & Anne Kim	200,000	손수웅	10,000	이영신	1,000
Nancy Chu	200,000	윤영희	10,000	정기순	1,000
최운태	180,000	임낙균	10,000	정춘임	1,000
Matthew Christensen	150,000	조두연	10,000	최병주	1,000
Dr. Hyung Tae Choe & Gertruda D. Chung Choe	100,000	송태진	5,000	최영옥	1,000
노명호	100,000	강한길	3,000	한귀희	1,000
박유미	100,000	익명	3,000	홍명희	1,000
오세경	100,000	Swansea Development Corporation (한귀희)	2,000	구철회	600
이홍표	100,000	김명숙	2,000	문지현	500
정인숙	100,000	남궁경	2,000	이아라	500
한홍택 백훈	100,000	박인희	2,000	김연숙	450
임승춘 임정희	84,809	이명희	2,000	Wonmu Hur	300
박영웅	60,000	이화숙	2,000	임소영	300
Benjamin & Vivian Hong	20,000	표양순	2,000	임진애	300
박한영	20,000	현상옥	2,000	이호진	200
서진	20,000	남순영	1,000	백남향	100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group.cpa

[LA]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Fax +82-2-872-4149 E-mail snuf@snu.ac.kr

결혼 60주년 이종석(의대 54) · 정정남 부부 “수고했어요, 힘들었지” 한마디가 해로의 비결

지난 2월 5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교 두레마을 농장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 결혼 60주년을 축하하는 ‘회혼식’이다. 그냥 60년을 살기도 쉽지 않을 터인데 결혼이후 60년을 더 살아야 이 식을 치를 수 있다니 회혼식이야말로 이 세상 부부의 최대 로망이 아닐까 싶다.

주인공은 이종석 동문(의대 54)과 정정남 여사 부부다. 당초 부부의 60주년은 지난해 12월 18일이었다. 그런데 두 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농장인 두레마을에서 이날 축하연을 열어준 것이다.

참석한 하객은 40여 명.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의대와 문리대 54학번 네 부부를 포함해서다.

부부는 선을 본지 두 달만에 혼례를 치렀다. 서로 첫 눈에 반했다고 했다. 그때가 1961년 12월 18일.

이 동문이 미국에 온 건 1964년이다. 필라델피아에서 트레이닝을 마치고 정신과 의사가 됐다. 미국 정신과학회 중신회원이기도 한 이 동문은 1998년 조지아로 와 15년을 더 일했다. 78세 되던 해 비로소 은퇴를 하고는 노년을 즐기며 지내고 있다.

열차 기관사였던 아버지, 전쟁과 가난... 이 동문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뻐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

남게 잡힌 바 되어 산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이 동문은 결혼 후 아내의 권유로 신앙을 받아들였다. 필라델피아 바이블 칼리지에서 10년이나 성경을 공부한 것만 봐도 신앙심의 깊이를 알 수 있겠다. 60년 해로의 바탕이 다른아닌 신앙이었던 것이다.

이 동문의 ‘회혼’ 비결은 뭘까. “여건을 탓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했어요, 힘들었지?” 짧은 한마디가 아내에게 큰 위안을 준다는 걸 예순해를 함께 살면서 깨달았다고 한다.

부인 정정남 여사도 남편을 만난 것을 감사해했다. “결혼 후 복음을 전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말씀은 바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결혼 25주년을 은에, 50주년을 금에 비하는 반면 60주년을 다이아몬드에 빗대어 말한다. 그만큼 귀하고 빛난다는 의미일 게다.

요즘같이 결혼의 순결성과 부부에 대한 성실성에 대한 관념이 탁해진 세상에서 이 동문 부부의 해로는 다이아몬드같이 빛난다. 부부는 다이아몬드가 발하는 광채처럼 주변 많은 부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취재=장민구(공대 86)



▲ 결혼 60주년을 맞은 이종석 동문 부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4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해 이 동문 부부의 백년해로를 지원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종석 동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월 15일 LA 한인타운의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남가주 사대동창회 신년하례식.

남가주 사대동창회 신년 하례식 새해 덕담 나누며 친교의 시간

남가주 사대 동창회는 지난 1월 15일 3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LA 한인타운의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

린 모임에서 김희경(사대 80) 동문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뜻 깊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승주 시카고 신임 회장 “만나서 반갑고 재밌는 동창회 만들터”



김승주
간호대 69

동창회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올해 회장 임기를 시작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얼마전 실행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단합대회를 가졌다. 올 한해 동창회의

주요 행사를 기획하고 예산을 짜는 등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

올해는 장학생 선발과 여름 피크닉, 골프 토너먼트 2회, 가을 음악회, 총회 겸 연말 파티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북클럽과 음악 동아리, 미식가 동아리, 하이킹, 낚시, 스와재, 댄스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문들을 접촉해 동창회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로 삼았다.

모든 임원들은 계획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 등 활기찬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동문들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상호 존중 속에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는, 마음 편하고 유익하면서 재미까지 있는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해 본다.



채규황 동문 남가주 법대 회장 연임

남가주 법대동창회 회장에 채규황 동문(법대 69)이 연임됐다.

법대 동창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에서 열린 총회 겸 송년모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기준(법대 54, 제 7·8대 남가주총동창회장) 동문을 비롯해 정인환(54), 권혁창(57, 제 18대 남가주총동창회장), 이창신(57), 최진석(64), 이세건(67) 동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고석자의 포토 에세이

“겨울의 홋카이도를 담았어요”

눈부신 설경 ... 하늘과 땅의 경계마저 모호



고석자
문리대 72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곳.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일본 홋카이도(북해도)가 바로 이런 곳이다. 밤마다 눈이 내려 자고 일어나면 늘 새로운 세상이 된다. 어찌면 영어의 ‘화이트 아웃(white out)’은 이런 경우를 일컫는 말일터. 원근감이 사라지는 상태.

눈이 쌓인 들판을 소복소복 걷다 보면 어디선가 와타나베 히로코(영화 ‘러브레터’의 주연배우)가 나타나 “오겔기데스까”(잘 지내시죠)하며 인사를 건네는 착각을 느끼게 된다. 영화에 등장하는 설경과 오버랩돼 이국 땅인데도 결코 낯설지 않다.

겨울은 아무래도 눈과 함께라야 제맛이 난다. 동문님

들을 홋카이도의 설국으로 안내한다.

작가는

뉴욕사진대학원(NY Institute of Photography)

IPA(2021) 모노비전 1등

파리국제사진전(2021) 1등

부다페스트국제사진전(2020) 금상

이탈리아 세니갈리아 그룹전(2022년 6월)

웹사이트: www.sueparkphoto.com

LA 샤토갤러리 관장

(www.shattogallery.com)



Mild Seven Tree

(24" x 30")

홋카이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일드 세븐’ 담배회사의 광고로 쓰여 이처럼 알려지게 됐다고 한다. 흰 눈이 내리는 사이를 비집고 떠오르는 햇빛이 눈밭에 길게 그림자를 만든 모습을 담았다. 마치 먹으로 그린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다.



Nostalgia

(40" x 40")

홋카이도는 겨울이면 온통 하얀 도화지처럼 변해 또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지난 2019년 겨울 홋카이도에 출사해서 카메라에 담은 이 사진은 IPA, Paris Px3, 부다페스트 국제 사진전에서 금상을 받았다. 언제 또다시 이런 설경을 담아볼 수 있을지...

Winter Tree

(24" x 36")

사색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서 흔히 ‘철학나무(Philosopher’s Tree)’로 불리는 나무다. 눈오는 새벽녘에 햇빛을 받아 파스텔 칼라가 된 하늘이 너무 고와서 셔터를 눌렀다.



Propose

(30" x 44")

운 좋게 천연기념물인 ‘단초’를 만날 수 있었다. 홋카이도에만 서식하는 학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숲컷이 암컷에 다가가 마치 프로포즈라도 하듯 날개짓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LA의 제 1회 실버 패션쇼에 참가해 화제를 모았던 김희경 동문(왼쪽)과 모친 최용선 여사. 어머니도 교수 출신이어서 '최강 스펙'의 모델로 불렸다.

‘MIT 박사 모델’ 김희경 동문 90대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서 캣워크 패션쇼 데뷔 모녀에 ‘멋지다’ 탄성 쏟아져

역대급 스펙의 모녀.

지난 2019년 9월 LA 한인축제 기간동안 가장 많이 회자됐던 말이다. 이들이 출전한 이벤트는 제 1회 실버 패션쇼.

‘모’는 최용선 여사로 당시 94세를 갓 넘겼다. 최고령이어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건’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녀’는 김희경 동문(화학교육 80). 올 초 남가주 사대 동창회장에 선출돼 서울대 커뮤니티에선 익히 알려져 있는 분이다.

김 동문 또한 어머니 못지 않은 화제를 모았다. 어쩌면 한인 축제 참가자 가운데 ‘최강 스펙’의 소유자인지도 모른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땀으니 말이다. ‘역대급 모녀’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닐 터다.

최 여사 역시 딸 못지 않게 가방끈이 길다. “이쁘지 않아서 학교만 다녔다”고 할만큼 재치와 끼가 넘쳐난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유학을 다녀와 대학교수가 됐는데도 어린 두 자녀를 서울에 남겨두고 교환교수로 미국에 다시 가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만큼 당찬 여성이었다.

요즘은 뭘하고 지낼까.

김 동문은 k-팝 댄스에 푹 빠져 산다. 2년 여 전 함께 캣워크를 했던 동료 모델 10여 명과 호흡을 맞춘다. 특히 박진영 댄스가 자신에게 ‘딱’이라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지난해 12월에는 LA 한인무

역협회의 송년회에 초대받아서 박진영 댄스를 공연하기도 했다.

“골프와는 달리 댄스는 10분만 배워도 늘어요.” 김 동문은 얼마전부터 필드에 나가 공을 친다. ‘말수회’에서 주로 선배들과 어울리며 기량을 익힌다. 마지막(말) 수요일에 모인다고 해서 말수회다.

“과거 모델이나 미인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50명 뽑는데 300여 명 몰려 요즘 ‘박진영 댄스’에 푹 빠져 패션모델은 삶의 자극제 ‘뿌듯’

있느냐”는 질문에 “무슨~”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 엄마 때문에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엄마가 시니어 모델을 모집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는 응모해 보라고 권했다는 것이다.

“엄마도 나가면 나도 따라 나갈게”해서 모녀 동반 출전이 성사됐다. 첫 관문은 오디션. 50명을 뽑는데 300명이 넘게 몰려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바로 엄마의 나이다. 패션계에선 여든이 넘

는 모델을 일컬어 ‘수퍼 시니어’라고 부른다. 그런데 아흔이 넘었으니 엄마는

‘하이퍼 시니어’ 아닌가. 당연히 엄마는 부름을 받을 줄 알았다. 딸은 덤으로라도 뽑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모녀는 한인축제 개막을 2개월 앞두고 강훈련을 받았다.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지도해 준 덕분에 떨지 않고 실수없이 데뷔 무대를

데미(2개월 과정)도 열어 워킹, 댄스, 화장법, 매너 등 패션 모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배운다.

연회비는 240 달러. 시니어들에게겐 결코 적지않은 돈이지만 김 동문에 따르면 ‘투자수익’이 원금의 몇십배다. 모델을 하다 보면 허리도 꼳꼳해지고, 뺏살도 빠지며, 무엇보다 친교도 맺게 되고. “솔직히 (패션 모델이) 운동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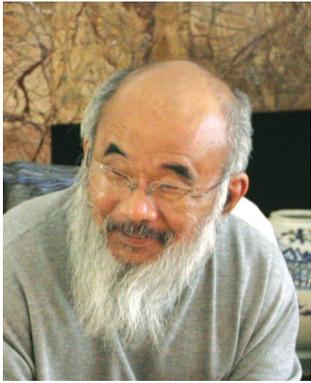
김 동문의 ‘모델 예찬’은 끊이지 않는다. 이제 ‘액티브 시니어’는 옛말이 되지 않았나싶다. 요즘은 ‘그레이네상스(Graynaissance)’가 대세라는 게 실감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여유있는 삶을 즐긴다는 것이다.

실버세대는 늙고 고루할 거라는 편견, 그런 편견을 깨고 활기차게 늙어가는 ‘웰에이징’시대에서 패션 모델만큼 신명나는 것도 없을 것 같다. “(시니어 모델 경험을 통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김 동문은 “어머니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지원했던 시니어 패션 모델이었는데, 패션쇼 참가가 삶의 자극이 되고 새로운 취미활동도 하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됐다”고 뿌듯해 했다.

<https://m.youtube.com/watch?v=N-PeCbXIWP0A&feature=youtu.be>

‘리얼리즘의 선구자’ 쿠르베

사회비판적인 예술 추구, 노동착취 고발 권력자의 무용담 거부, 파리 시민봉기 실패하자 망명



장소현

미대 65 · 미술평론가 · 시인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그릴 수 없다. 천사를 내 눈앞에 데려다 놔라. 그때 그려주겠다.”

사실주의 미술의 물꼬를 튼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의 말이다. 천사를 그려달라는 누군가의 요청을 딱 잘라 거절하면서 한 말이다. 이 한마디로 쿠르베는 일약 사실주의의 대부로 공인받는 인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시로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고, 리얼리즘 미술의 핵심을 함축한 말이기도 하다. “미술이란 무엇인가? 미술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

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혁신적인 대답을 담은 사상인 것이다.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는 쿠르베가 당시 주목받지 못한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 전시한 개인전에 붙인 ‘레알리즘’(realisme)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리얼리즘은 매우 폭넓고 민감한 개념이다. Realism이란 낱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寫實主義, 事實主義 또는 현실주의 등으로 다양한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리얼리즘이라는 낱말을 사용했다.)

리얼리즘은 서양 현대미술의 막을 연 미술운동이다. 오랜 동안 미술을 지배하고 있던 고전적 전통적 개념을 과감하게 깨부순 혁신적 움직임이었다. 리얼리즘 덕에 그 이후의 현대미술이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 표현주의 등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리얼리즘은 미술사적으로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 때까지 오랫동안 미술을 지배해온 권력이나 종교에서 벗어나, 평범한 생활인들의 현실적 삶에 눈을 돌렸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술의 내용에 있어서도 신화, 전설, 권력자들의 영웅담, 거룩한 성경 이야기를 거부하고 평범한 생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묘사했다. 그래서 천사를 그릴 수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한 것이다.

리얼리즘 이전, 미술의 기본은 대상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실감 있게 재현하는 것이었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묘사하는 것이 화가의 일이었다. 이에 비해, 리얼리즘 미술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 사회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사회비판적인 예술을 추구했다.

이렇게 리얼리즘은 일부 계층이 독점하고 있던 거룩하고 성스러운 미술을 보통 시민들의 생활 현실로 끌어온 것이다. 그 선봉에 쿠르베가 서있다.

쿠르베는 부유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스무 살 때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할 계획으로 파리로 갔으나, 국가에 구속되는 삶이 싫어 법학을 포기하고, 그림 그리기에 전념하며 화가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인지 예술활동에 안주하지 않고, 파리코뮌에 참여할 정도로 정치와 사회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보여 농민



돌 깨는 사람들, 1849년 작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 1854년 작

당당히 지팡이 짚고 검은 수염 기른 인물이 쿠르베이며 가운데의 녹색 코트의 사내가 은행가의 아들이며 후원자인 브뤼아스, 뒤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은 브뤼아스의 하인 칼라스이다. 보통이라면 쿠르베가 후원자인 브뤼아스에게 예를 표해야겠지만 반대로 그리면서 가진 화가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나타냈다.

이나 도시 하층민의 비참한 현실을 묘사한 작품으로 사실주의 미술의 선구자가 되었다.

쿠르베는 1847년 네덜란드 여행을 계기로 렘브란트의 화풍, 베네치아화파, 에스파냐 화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분석했고, 이어서 30대에 들어선 1850년 전후에 자신의 개성적 화풍인 사실주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예술관에는 1848년 혁명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그는 훗날 파리 코뮌이 무너지자 스위스로 망명해 그곳에서 향년 58세로 생을 마감했다.

쿠르베는 농부와 노동자의 누추한 모습이나 중산층 부인의 뚱뚱하고 세속적인 모습을 주관적으로 변형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그렸다.

〈오르낭의 매장〉 〈만남〉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 〈돌 깨는 사람들〉 〈세상의 기원〉 같은 작품에 그의 철저한 리얼리즘 사상이 잘 나타나있다.

〈돌 깨는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과장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묘사한 쿠르베의 리얼리즘 미술을 집약한 기념비적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림에 묘사된 노동자들은 힘에 부치는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

쿠르베는 이처럼 가난한 서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실상을 고발하였다.

사진의 등장과 리얼리즘의 관계도 흥미롭다. 사실 쿠르베가 화가의 길을 걷기 전인 1830년대에 사진이 이미 나와, 사물을 재현하는 기능은 한물 간 것으로 취급되었지만, 쿠르베는 ‘사실’을 추구하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데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현의 기교에 머물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직을 떠나며 80년대 이후 학번 최초의 회장, 부담감 적지 않아



최용준
수의대 81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직은 1년이다. 하지만 차기 회장이 되었을 때부터 꼬박 2년은 오로지 동창회 생각 뿐이었다. 모든 대면 활동이 마비된 팬데믹 사태는 설사 이 상황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회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겠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80년대 이후 학번 최초 회장으로서 부담감이 적지 않았던 나는 팬데믹을 이겨내며 보다 더 즐겁게 발전할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시작했다. 정식 회장 취임 서너달 전부터 속속 모이기 시작한 임원들과 준비한 그 첫 순서가 유튜브 영상 제작이었다.

정기 총회가 연기되고 회장 이취임식만 줌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모교 오세정 총장님을 비롯한 내외 인사들과 임원들의 새해 인사로 미리 준비한 첫 유튜브 영상을 공개, 동문들에게 우리 임원들의 공식 활동 시작과 우리 동문회의 건재함을 알렸다.

이후 다양한 주제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선후배 간의 거리를 좁히고 유익한 정보를 알리려 노력했고 동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자부한다.

동문 모임은 재미와 함께 의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준비한 모교 발전기금 마련 자선 음악회는 가장 보람된 행사 중 하나였다.

지난해 7월 음악회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은 감동의 연속이었다. 저소득층 후배들의 식사비 지원이 주 목적이었지만, 또한 서울대인이 세계 문화계의 리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한창 나래를 펼치다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멈추어 의기소침하던 젊은 연주자들에게도 뜻깊은 무대가 되었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참여한 솔리스트들 중에서도 각 파트의 수석은 악장을 비롯해 모두 우리 동문이어서 그 또한 무척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학연 지

연 인종 등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폭넓은 시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동문 행사 무대의 틀을 깨고 그 어느 공연보다 수준 높고 감동적인 연주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후원은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관

와 희생을 잊을 수 없다. 다달이 정기 임원회의 및 행사 준비를 위하여 평일은 물론 때로는 주말까지 모여야만 했다. 또한 동문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 없이 동문들에게 연락하고 행사 RSVP나 후원, 협찬 등을 부탁해야 했다.

게다가 '진리는 나의 빛' 악극단을 결성, 없는 시간을 쪼개어 연습하여 밴드 연주와 노래, 그리고 연극까지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임원들 대부분은 지난 한 해 동안 개인 휴식 시간을 포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동창회 운영에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하물며 팬데믹까지 겹쳤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충고와 젊은 후배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며, 그저 단 한가지만 생각하며 달렸다. 주변 여건에 흔들려 포기하지 말고 재미있는 동창회를 만들자! 그리고 모교에 도움되는 동창회, 동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자. 이는 회장이나 임원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대 동문으로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사명이다.

부족함 많은 나를 뽑아주셨던 선후배님들, 날 믿고 따라 준 우리 임원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동문회에 관심 가져 주시고 동창 행사에 적극 참여하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 또 감사를 전한다.



지난해 12월 11일 열렸던 남가주 총동창회 송년 대잔치.

팬데믹이 전화위복... 유튜브 활성화 계기 임원·동문들의 '사랑의 수고' 결코 못잊어

심과 사랑은 감동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도 144명 샷건을 기록한 동문골프 토너먼트와 야외 정찬으로 진행한 정기 총회, 동문 가족 야유회와 원로 초청 오찬 행사, 그리고 예년에 없던 송년 대잔치까지 모든 행사가 참가자 수나 그 내용에서 기록적이었고 성공적이었다.

이를 위해 수고한 우리 임원들의 봉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CHOLARSHIP

미국내 대학 Undergraduate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멘토링도 제공

마감 2022년 3월 31일 **발표** 2022년 4월 30일

서류 이력서와 성적증명서, 에세이 등은 별도로 Upload

신청 [www.snuaa.org>services>scholarship](http://www.snuaa.org/services/scholarship)

문의 scholarship@snua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가 한인사회는 물론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SNUAA Undergraduate Scholarship)은 **1인당 \$10,000, 모두 10명까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혜대상은 서울대 출신이나 서울대 동문자녀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한인 커뮤니티에 오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이면 전공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매년 10만 달러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에게는 서울대 출신 동문들이 멘토링을 제공하며 잠재력을 개발할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 N U A A U S A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13) 908-5586 •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신발 수선소 할아버지 (The Aged Shoe Repair Man)



서윤석
의대 62

굵주림과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전선에 내렸다
동이 틀 무렵 총성이 멈췄다
밤새 밀려오던 그림자들도 사라지고
산 봉우리 위를 하얀 눈이 덮었다
땡과리, 피리소리도 끊기더니
흰 옷을 입은 적군들이 북으로 물러갔다
쌍둥 터널 *지평리로 푸른 열차가 들어오고
포위망이 열린 고지에서는
새벽 찬송이 울려 퍼졌다

네모난 가게 속에서 할아버지가 꿈을 꾸다
곡예사가 앞에 서고 슈 사인 소년이 따라간다
“구두 닦어, 신발 닦어” 소리치며 간다
눈물이 섞인 그의 목소리 메아리 치는 계곡에서
병사들이 새 신을 신고 살아나온다

반 세기 후, 해마다 이 때가 되면
옛 싸움터에 사람들이 모인다
거리에는 전동차가 정시에 섰다가 출발하고
수 많은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물결로 흐른다
아직도 할아버지는 전우들의 신을 고친다
육이오 특집방송을 들으면서
주름진 손으로 이마의 구슬땀을 닦는다

시작 노트

1951년 2월 13~16일 6·25 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전투와 50년 후 당시 참전했던 유엔군과 중공군 중 생존자들이 모여서 화해하는 장면을 담았다.

양쪽 전사자들에게 새 신발을 신겨서 되살려주고 싶은 심정을 노래한 서사시다. 군사 전문가들은 아군이 이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중공군이 퇴각하게 됐고 현재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됐다고 말한다.

지평리 작전은 맥아더 장군의 후임으로 부임한 매튜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총괄 지휘했다. 미 제 2사단 23연대, 특히 포위망의 서쪽 방어를 담당했던 프랑스의 몽클라르 대대장(장군)의 활약은 세계전쟁사에 실릴만큼 뛰어났다.

시에 등장하는 신기료(헌신이나 구두를 고쳐주는 가게) 할아버지는 필자의 형 서준석(당시 서울고 2학년)을 오마주한 것이다. 형은 당시 23연대 공병중대 통역관으로 이 전투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가깝게 지냈던 미군병사(Big

John·사진)와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엘리트 중대장(John Stuck)은 아깝게 전장의 이슬이 됐다.

형은 미군 전우들의 도움으로 유학, 시카고의 서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1968년 한인으로서 처음으로 시카고에 CPA 사무실을 오픈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형수(고) 김한철 여사도 서울대 동문으로 사대 가정과 출신이다.

해마다 2월이 되면 법대 동문인 김성수 변호사의 주도로 생존 군인들을 초청해 화해의 축제를 벌인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행사가 중단됐다.

“그렇게 엄마가 된다”



심희연
음대 성악 90
템플대 교수

그 동안 영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많이 보지는 못했다. 어릴 적엔 늘 일찍 잠자리에 들던 습관 때문에 주말의 명화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고, 중고등학생 시절에도 친구들과 영화관을 간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학 가고 나서야 친구들과, 선배들과 영화관을 종종 다니게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 유학 오고 나서는 공부하느라, 결혼 후에는 육아에 치여 영화관에 가는 게 쉽지 않았다.

이래저래 보고 싶어도 못본 영화들은 쌓여 갔지만, 당장 해야 할 일들에 치여 ‘나중에 시간 날 때’ 라고 미루어 두었다. 그런데 드디어 팬데믹으로 인해 시간이 생긴 것이다! 더구나 수집벽이 있는 남편은 많은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DVD를 모아 놓았으니, 나의 영화 여행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관심이 생기니 영화 관련 유튜브도 찾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몰랐던 감독들과 배우들을 알아가는 즐거움도 생겼다.

그 중 한명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다. 한국에도 많은 팬들이 있는 고레에다 감독은 1995년 ‘환상의 빛’으로 영화감독 데뷔를 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수상경력을 쌓으며, 일본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자리매김 했다.

그의 열네 편의 영화 중 ‘아무도 모른다’, ‘걸어도 걸어도’, ‘어느 가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네 편을 보았다. 모두 가족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큰 울림을 주는 영화들이었다. 그중에서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제목에서부터 끝났는데, 아마 내 자신이 아직도 한참 부족한 엄마로 느껴지기에 그랬던 것 같다.

이 영화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바람에 엮이게 된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료타는 성공적인 건축가로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들과 함께 도쿄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6년 간 키운 아들 케이타가 친자가 아니고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친자인 류세이는 시골에서 전과상을 하며 근근

이 살아가고 있는 사이키 유다이 밑에서 자라고 있었다.

료타는 매사에 이성적이고 엄격하며 자신의 일이 삶의 일순위인 사람으로,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 바쁜 아빠다. 반면 유다이는 경제적으로 풍족



하진 못해도 아이들에게는 자상하고 같이 잘 놀아주는 사랑 넘치는 아빠다. 케이타가 조용하고 순종적인데 비해 류세이는 활발한 성격의 장난꾸러기이다. 어머니들은 두 집 다 모성애가 강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기른 정과 낳은 정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렇게 환경과 성향이 다른 두 가족이 만났으니 갈등과 시행착오는 당연한 것

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완고한 료타는 차츰차츰 변해 간다.

모든 배우들이 좋은 연기를 보이지만, 그 중 료타가 케이타가 찍은 카메라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는 장면은 압권이었다. 늘 자신이 옳다고 믿던 료타가 그 사진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어린 아들의 마음을 느끼며 무너지는 모습이 나도 따라 울고 말았다.

마지막 장면도 참 좋았는데, 친부모의 집에 데려다 놓은 케이타를 찾아간 료타가, 마음이 상해 도망가는 아이를 뒤쫓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나란히 펼쳐진 두 갈래 길에서 케이타는 위쪽 길로, 료타는 아래쪽 길로 걸으며,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라며 서운해 하는 아들에게 료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두 갈래 길이 만나는 끝에서 아이를 꼭 안아주는데 마음이 몽글했다.

제목이 말해주듯, 이 영화에서는 아버지의 성장기가 더 도드라지지만, 사실 아이를 낳는다고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처음 해 보는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아닌가?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때로 넘어지고, 때로 울기도 하면서, 켜켜이 쌓아온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부모가 되어가는 것일 거다. 나는 과연 그 길 어디쯤에 있을까?



백 솔
사회과학대 09
메릴랜드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내향인’의 시각에서 본 동창회

지 성격 유형을 도출해낸다. 네 가지 분야는 (1) 에너지 방향(외향[Extraversion] vs. 내향[Introversion]), (2) 인식 기능(감각[Sense] vs. 직관[Intuition]), (3) 판단 기능(사고[Thinking] vs. 감정[Feeling]), (4) 이행 양식(판단[Judgement] vs. 인식[Perception])으로 구성된다.

사실 성격 유형은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날 잘 모르겠다 싶을 때 한 번씩 해보면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필자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성격 유형 검사에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학년에 진급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스스로 해왔는데, ENFP에서 ENTJ, 그리고 박사과정을 졸업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INFJ, 소위 예언자형이라고 불리는 성격 유형으로 변모해왔다. 적어도 에너지 방향을 봤을 때, 외향형에서 내향형으로 변화해온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동창회와 같은 사회 활동 참석 빈도를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4점 정도(“그렇다”)에서 1점(“전혀 아니다”)으로 변화해온 셈이다(5점이 아닌 4점인 이유는 처음부터 외향성 60%에 내향성 40%인 외향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필자는 소수와의 만남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은 다음 날에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하는 내향인인 것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동창회 모임에 선뜻 나가기가 쉽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친절하게 맞이 해주시는 회장님과 타지에서 학업에 힘쓰라고 도와주시는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함께와

혼자의 그 중간 지점을 찾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창회 모임들은 수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하지만 내향인에게도 동창회에서의 공간이 있다. 동창회를 통해 알게 된 몇몇 동문들과의 소소한 만남, 이렇게 글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동창회보, 어쩌다 주고 받게 된 이메일과 문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했던 동문들과의 점과 점 사이를 이어준다.

때로는 타지 생활 중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다가도, 동창회의 존재만으로도 ‘이 먼 곳에도 연결된 점들이 있구나’하는 마음에 소소한 위로를 받기도 한다.

분명 동창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나와 같이 숨어있는(?) 내향인들이 곳곳에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성향을 누리면서도 동창회 안에서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동창회에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지금이 글처럼 말이다.

요즘 MBTI 검사(Myers-Briggs Type Indicator) 같은 성격 유형 테스트가 유행이다. MBTI 검사의 경우 캐서린 브릭스(Katharine Cook Briggs)와 그녀의 딸 이사벨 마이어스(Isabel Briggs Myers)가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이다.

비록 과학적 타당도 및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간편한 도구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다.

이 검사는 총 네 가지 분야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무엇인지를 조합해 16가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수퍼보울 C’ 미국은 여전히 슈퍼파워일까

수퍼보울 개막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기 10여 분 전, 조는 한 자리가 비어있는 걸 발견했다. 궁금한 나머지 그 옆 좌석의 남자에게 물었다. “이 자리 임자가 있나요?” 마지못한 듯 남자가 입을 열었다. “네 겁니다.” 조는 궁금증이 더해졌다. “근데 왜 혼자서?” 남자가 통명스럽게 말을 받았다. “아내와 함께 오기로 했는데 그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헐, 조는 그래도 믿기지 않았다. “그러면 친지들 가운데 한 분과 함께 왔어야지요.” 남자가 혼자 온 이유를 댔다. “지금쯤 그들 모두 장례식장에 있을 거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하이데거와 하마, 천국의 문을 향해 걷다’ (Heidegger and a Hippo Walk Through Those Pearly Gates)는 책에 나오는 대목이다. 제목부터 괴이하기 짝이 없다. 하이데거는 ‘실존철학의 지존’으로 불리는 20세기 최고 석학 중의 한 분. 그런데 하마는 또 뭐고, 저자는 토머스 캐스카트와 대니얼 클라인. 둘 다 이른바 개똥 철학자들이다. 삶의 궁극적인 명제인 죽음을 유머로 풀어내 독자들을

뜨악하게 만들었다. 아내의 천국행보다 풋볼이 더 중요하다는 건지. 아무튼 미국인들은 수퍼보울에 영혼이 저당 잡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우선 위풍당당 경기장에 들어서면 선수들에게서 로마제국 병사들의 체취가 물씬 풍긴다. 300파운드가 넘는 거구들이 헬멧을 눌러 쓴 채 입장하면 스타디움은 10만 관중의 함성으로 뒤덮이고, 세상에 투구를 쓰고 경기를 하는 팀 스포츠가 풋볼 말고 또 있는가.

수퍼보울 원년은 1967년. USC(남가주) 대학 풋볼팀의 홈구장인 LA 콜리시엄(로마식은 콜로세움)에서 처음 열렸다. 하필이면 왜 여기서? 옛 로마의 원형경기장을 본 따 지어서다. 어느 팀인가는 기억에 없지만 그 구단주의 말을 인용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싶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

수해 관중을 수용할 수만 있다면 프로 풋볼(NFL) 개막전을 그 곳에서 치르고 싶다.”

콜로세움이 어떤 곳인가. 검투사들이 피 흘려가며 치열하게 싸웠던 곳 아닌가. 경기장 바닥에 왜 고운 모래가 깔려있는지 그 이유를 알 만할 터다.

지상 최대의 엔터테인먼트가 열렸던 로마의 콜로세움. 그래서 수퍼보울의 하프타임 쇼는 올림픽 저리가라다. 선택받은 자만이 무대에 설 수 있으니까, 올림픽이 그리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면 수퍼보울은 세계 최초의 패권국이 로마제국을 빼다 박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퍼보울은 로마 숫자로 표기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기본숫자는 I(1)·V(5)·X(10)·L(50)·C(100)·D(500)·M(1000). 숫자의 왼쪽은 백셈, 오른쪽은 덧셈으로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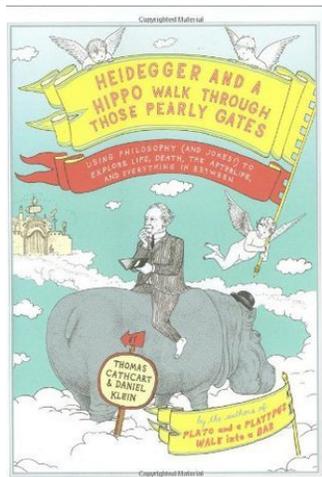
있다. 예를 들어 IX(10-1)는 9가 되는 식이다.

아라비아 숫자를 쓰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왜 로마숫자를? 클래식하고 강인해 보여서다. 그래서인지 미 육군의 주력부대인 군단도 로마숫자로 표기한다. 인천에 상륙한 미 10군단은 영어로 ‘X Corps’다.

토요일에 경기를 치르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일요일을 고집하는지. 기독교 신자들이나 성직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래서 ‘수퍼 선데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챔피언이 누가 될지는 그날 하나님만이 짐지해 주신다고 해서다. 아마 신마저 궁금해 만사 제쳐놓고 하늘에서 수퍼보울을 구경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나님도 그런데 하물며, ‘하이데거와 하마~’에 등장하는 남자가 아내 장례식도 빼먹고 수퍼보울 구경 온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지난 2월 13일 열린 수퍼보울 LVI(56회)는 홈팀 LA 램스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수퍼보울C’(100회)가 예정된 MMLXVI(2066)년에도 미국은 여전히 슈퍼파워일까. **<편집고문>**



이홍표 박사의 ‘남태평양 이야기’

사모아에서 의료봉사... 지친 몸과 마음 치유

작년부터 코로나-19 관계로 거의 매일 집에 있게 됐다. 저녁에는 20여 분 산책을 한 후 태평양이 흰하얗게 보이는 뒷마당 안락의자에 앉아 깊은 상념에 빠지곤 한다. 와인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태평양 바다와 관련된 수많은 과거의 ‘사건들’을 붉은 석양에 물들어 있는 바닷속에서 하나씩 건져내어 회상해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나는 50여년 전 디트로이트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마친 후 LA의 카이저 병원에 자리를 잡았다. 얼마 후엔 바다가 가까운 하버 시

의 카이저로 옮겼다. 카탈리나 섬과 태평양이 막힘없이 보이는 조용한 언덕 위의 집으로 이사한 후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고 있다. 호박색 붉은 석양이 매일 찾아온다고 해서 집 앞길 이름도 ‘Amber Sky Drive’다.

나는 흥남 해안 가까운 곳에서 7살까지 살았다. 내 처는 여수 언덕위의 집에서 바다와 섬을 보며 자라 우리 둘 다 바다에 대한 연민이 깊었다. 저녁 노을 속으로 태평양 서남쪽을 보면서 40여 년 전 여기서 4,836마일 떨어진 사모아 섬에서 지냈던 때를 회상해 본다.



이홍표
의대 58

카이저 병원에서 심장내과 의사로 바쁘게 일하던 나는 젊은 나이였는데도 10년 후엔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때 카이저에서는 5~10년에 한 번씩 3개월간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안식휴가를 신청했다.

내가 처음 이스턴 사모아에 도착한 때는 1981년이다. 린든 존슨 메디컬 센터 심장내과 자원봉사 의사가 된 것이다. 병상 100개도 안되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섬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규모가 컸다.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는 하와이, 사모아, 통가, 타히티 등 1천여개의 섬들로 구성돼 있다. 원주민들은 대부분 몸집이 크다. 남태평양에 기지가 필요한 미국은 1872년 이스턴 사모아를 합병한 후 원주민들에게 무상배급을 줬다. 놀면서 많이 먹은 탓인지 체중이 늘어 보통 250파운드가 넘었다. 반면 뉴질랜드에서 독립한 웨스트 사모아는 무상배급이 없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체중이 우리 정도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주민들을 교화시켜 지금도 부락마다 교회가 있고 일요일이면 거의 모든 주민들이 흰 옷을 입고 교회를 간다. 그런데 백인들은 바닷가에 수영복 차림으로 놀고 있어 내겐 매우 역설적으로 보였다.

사모아에 있는 동안 위급한 환자들을 여럿 살려내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뿌듯해진다. 하루는 300파운드나 되는



지난 1981년 처음 방문한 사모아. 카이저 병원에서 3개월 ‘안식휴가’를 받아 의료봉사를 했다.



아들과 함께 프랑스 화물선을 타고 타히티 등 여러 곳을 둘러봤다.



지난 2005년 크루즈 여행 중 이스터 아일랜드에서 ‘모아이’ 돌상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추장에 ‘페이스메이커’ 응급 시술 한국선원 아들 완치시켜 ‘뿌듯’ 뒷마당서 태평양 보며 과거 ‘회상’

거구의 추장이 갑자기 쓰러졌다. 응급으로 페이스메이커를 시술하고 비행기에 태워 하와이 병원으로 옮겼다. 덕분에 추장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한국선원과의 만남도 소중한 인연으로 기억에 남는다. 원양어선 어부인 그는 현지 원주민 여자와의 사이에 7살 난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선천적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내가 샌프란시스코의 소아심장내과로 보내 완치시켰다.

사모아를 떠나기 일주일 전 소년의 가족이 큰 파티를 열어줬다. 돼지를 통째로 땅밀에 야자수로 싸고 위에서 오랫동안 불을 때워 익힌 다음 땅에서 꺼내 먹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1996년 타히티의 Papeete 항구에서 당시 의과대학에서 힘들게 공부하던 아들과 함께 Aranui라는 화물선을 타고 3주일에 걸쳐 항해를 한 일도 떠오른다. 화물선은 프랑스 선박이었는데 부수입원으로 여행객을 받아줬다. 화물선

이 선적과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느긋하게 관광을 즐겼다. 이 여행에서 아들을 더 잘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음은 물론이다.

‘모비딕’의 저자 허만 멜빌이 살았던 Nuku Hiva,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 눈을 감은 Hiva Oa 등 많은 섬들을 답사했던 일이 생각난다.

타히티는 이외에도 영화 ‘바운티호의 반란(Mutiny on the Bounty)’ 배경무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일부 선원들이 지상낙원인 타히티를 떠나기 싫어 반란을 일으키는데 영국은 반란자들을 모두 체포해 처형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영제국 해군의 철저한 군율을 보여주고 있다.

내 취미의 하나는 밤하늘 별을 관찰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이스터 아일랜드로 개기일식을 관찰하러 갔었다. 이곳은 800개가 넘는 ‘Moai’라고 불리는 거대한 돌상으로 유명하다. 이 근처를 향해하면서 일식을 경험했다. 아침 11시경 해가 달에 가려져 깜깜한 밤이 되고 수많은 별들이 별안간 나타나 반짝였다. 처음 경험한 완전 개기일식이였다.

4년 전 LA에서 한 달동안 프린세스호를 타고 크루즈를 다녀왔다. 하와이, 사모아, 타히티를 거쳐 남태평양을 돌고 왔다. 예전에 있었던 곳을 찾아보며 지난 일을 회상할 기회가 있었다.

태평양은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와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마젤란에 의해 서구의 식민지가 됐다. 역사엔 그러나 중국 명나라의 해군제독 정화(鄭和)가 이틀보다 100년 앞선 1405년 대함대(52개 함정에 병사 2만 8천여 명)를 이끌고 원정길에 나섰다는 기록이 나와있다. 명나라 황제가 그 함대를 중국으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태평양의 서구세력은 미미하게 끝났을 것이고 세계역사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기도 한다.

우리집 뒷마당에서 보는 석양이 오늘 따라 멀리 남태평양에까지 닿는듯 하다. 내게 과거는 항상 아름답게 기억이 된다.

서울대인의 나라사랑하는 전통 경제대국에 걸맞는 시대정신 창조해 내야

미주 서울대 동문들은 모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전 기금, 인재 양성 기금, 도서관 증축기금 등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인재 양성 기금(장학금)의 수혜자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서울대 재학생만으로 국한했던 것을 이번 제 16대 미주 동창회부터는 그 범위를 넓혀서 어느 학교를 나왔건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한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바다. 이 제는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더 넓은 차원의 인재양성이 필요할 때라고 여

겨지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148명 중 141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의원 가운데 48%가 서울대를 나왔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이 외에도 한국의 정치, 법조계, 교육, 언론, 문화계 등 모든 분야의 고위직에 포진한 서울대 동문들의 활약은 화려하다.



정동구
공대 57

한국의 산업 기술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공계 동문들의 활약은 어떠했나 짚어 보게 된다. 60년 전 한국의 GDP는 세계 110개국 가운데 끝에서 여섯 번째에 속했었고 그 때는 남한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았다.

‘우리도 잘 살아 보자’는 정부의 과감한 경제 정책에 기업들이 호응해 국가 경제 발전에 앞장섰다. 대기업들이 만들어낸 일자리에 주로 공과 대학을 졸업한 선배, 동료, 후배들이 대거 참여해 명석한 두뇌와 노력으로 60여 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오르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졸업후 10년을 한국에서, 나머지 50여 년을 미국에서 살아온 필자의 눈에도 그 동안 이루어 낸 본국의 산업 기술 발전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삼성과 LG, 현대 등이 만들어낸 TV, 스마트폰 등 많은 가전 제품과 자동차는 그 판매량이 기존 다른 회사들을 앞지르고 있으며 삼성의 반도체 기술과 생산 능력은 세계 1, 2 위를 다투고 있다.

현대, 삼성, 대우 조선 등이 맡고 있는 대형 원유,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원유 시추선의 수주량은 세계 1위를 연속 점유하고 있다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은 한국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유학생을 보내고 노동자를 보내서 돈을 벌어가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토록 눈부신 산업, 경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의 정치는 70년 전의 이합집산과 편가르기식의 구태의연한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듯 하다.

전직 대통령들이 비리 혐의로 줄줄이 징역형까지 받게 되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갖게하는 정치적 혼란과 민주정치의 담보상황은 앞에서 열거한 경제 발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만의 불행한 역사라고 여겨진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도와주는 정치가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3월 초에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대선 주자들의 선거

제 서울대가 동문들의 화려한 입신양명으로 부러움을 사는 것에서 탈피해 정의와 용기, 애국으로 힘을 합쳐 한국 사회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불어 일으키고 살기좋은 나라 건설에 앞장 서 국민들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서울대가 되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이번 대통령 후보 중에는 서울대 동문 출신이 두 사람이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자유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이외에 달리는 그 어떤 정치 철학이 있지 않을진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무엇이든 정점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해 서로 협력과 양보의 미덕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다.

3월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산야에는 진달래, 개나리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훈훈한 봄이 찾아온다.

국민들의 가슴에도 안도와 희망이 넘쳐나며 수많은 선열들과 우리 부모세대가 고대했던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 수출될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를 살렸는데 정치가 발목 ‘입신양명’은 구시대의 유물 정의와 용기 · 애국이 참 덕목

운동은 치열한 듯하며 서로 상대방의 비리 폭로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방에 특혜를 약속하는 등 표를 사기위한 구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학 로고에는 “진리는 나의 빛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가 쓰여있다. 이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십시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 모금액 \$1,054,902

종신이사 (\$3,000이상) 2022년 2월호

다이아몬드이사

위싱턴주 - 故고광선(공대57)

플라티넘이사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네바다 - 정상진(상대 55)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커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실버이사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욱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종신이사

남가주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재영(농대62)
나두섭(의대66)
노재성(법대58)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중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서동영(사대60)
서치원(공대69)
심상은(상대54)
심화섭(약대61)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종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호동(공대58)
홍병각(문리55)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석창호(의대66)
신용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옥(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고일석(보건69)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박경민(의대53)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옥(의대60)
정태영(문리71)
홍지복(간호70)

미시간

정태(의대 57)

미네소타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효숙(사대65)

북가주

강재호(상대57)
민병곤(공대65)
손석보(공대68)

윤정옥(약대50)
전혜경(문리67)
한만섭(공대49)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시카고

남상용(공대52)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오레곤

김상순(상대 67)

오하이오

김용현(경원66)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박평일(농대69)
이윤주(상대 63)
최지원(의대61)
강연식(사대57)
권기현(사대53)
민홍기(문리61)
방은호(약대43)

이내원(사대58)
오인환(문리63)

워싱턴주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코네티컷

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옥(가정77)
신성식(공대56)
신의석(공대53)
이만택(의대52)
주기숙(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종신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이사	\$10,000 이상
(S) 실버이사	\$5,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새 종신이사 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01월 종신이사

- 남가주
골드이사 이홍표(의대 58)
- 남가주
종신이사 홍종화(약대 74)

2021년 12월 종신이사

- 남가주
골드이사 이병준(상대 55)
- 남가주
골드이사 노명호(공대 61)
- 남가주
실버이사 이종도(공대 66)
- 남가주
실버이사 김병연(공대 68)
- 워싱턴DC
실버이사 남욱현(경영 84)
- 북가주
종신이사 한만섭(공대 49)
- 시카고
종신이사 조봉완(법대 53)
- 북가주
종신이사 강재호(상대 57)
- 뉴욕
종신이사 이태호(상대 58)
- 남가주
종신이사 박용필(문리 66)
- 남가주
종신이사 이근원(공대 67)
- 코네티컷
종신이사 유시영(문리 68)

2021년 11월 종신이사

- 남가주
골드이사 한홍택(공대 60)
- 남가주
종신이사 나두섭(의대 66)

2021년 10월 종신이사

- 남가주
종신이사 홍병각(문리 55)
- 워싱턴 DC
종신이사 이내원(사대 58)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2021.7.1 ~ 2022.6.30, 제2차 회기:2022.7.1 ~ 2023.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법 58)
 강동순(법 59)
 강윤희(간 46)
 강중경(공 48)
 강춘자(간 69)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강희창(공 57)
 고석규(치 65)
 구철희(의 78)
 권기상(대 72)
 권오근(상 58)
 김강수(문 59)
 김건진(문 62)
 김경수(사 54)
 김경수(치 58)
 김경숙(간 68)
 김경옥(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기덕(문 74)
 김난영(공 53)
 김동산(법 59)
 김동석(음 64)
 김문엽(농 83)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세담(법 55)
 김생철(법 54)
 김석구(공 66)
 김석훈(법 59)
 김선희(문 66)
 김성건(공 56)
 김성호(법 64)
 김성환(의 65)
 김수영(사 57)
 김수향(간 68)
 김순자(치 57)
 김영덕(법 58)
 김영도(공 67)
 김영봉(사 60)
 김영중(치 66)
 김영희(간 54)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은숙(미 62)
 김의영(문 61)
 김일영(의 65)
 김자경(사 60)
 김자성(의 79)
 김재영(농 62)
 김재희(문 54)
 김준일(공 62)
 김진석(공 66)
 김창진(공 77)
 김태운(법 53)
 김택수(의 57)
 김학철(의 55)
 김현순(간 69)
 김홍목(문 60)
 김화선(의 55)
 김희재(사 66)
 김희창(공 64)
 나두섭(의 66)
 나민주(음 65)
 나승욱(문 59)
 노명호(공 61)
 류정순(상 69)
 문병길(문 61)
 문인일(공 51)
 박명근(상 63)
 박민식(수 65)
 박부강(사 64)
 박영옥(사 55)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인창(농 65)
 박입하(치 56)
 박제환(문 75)
 박종수(수 58)
 박찬호(농 63)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호성(의 55)
 박호현(의 52)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배병욱(음 58)
 배윤숙(미 65)
 배효식(문 52)
 백승호(치 55)
 변영근(수 52)
 서동영(사 60)
 서명희(농 67)
 서치원(공 69)
 성낙호(치 63)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손학식(공 61)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신복례(문 83)
 신영찬(의 63)
 심상은(상 54)
 안병일(의 63)
 안승호(공 71)
 양승문(공 65)
 양은택(의 58)
 양태준(상 56)
 염동태(농 74)
 오선운(의 63)
 오찬수(약 57)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공 63)
 유이중(농 74)
 옥태식(의 61)
 윤경민(법 55)
 윤석철(상 60)
 윤진수(의 57)
 윤희성(치 65)
 이강훈(치 65)
 이갑섭(치 54)
 이경희(생 69)
 이명선(상 58)
 이방기(농 59)
 이범모(치 74)
 이범식(공 61)
 이성자(간 76)
 이소희(의 61)
 이인순(간 78)
 이영수(상 60)
 이영신(간 77)
 이영일(문 53)
 이영현(간 70)
 이윤환(공 64)
 이원익(문 73)
 이원택(의 65)
 이유빈
 이익삼(사 58)
 이장길(치 63)
 이재권(법 56)
 이재룡(공 71)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조숙
 이종도(공 66)
 이종모(간 69)
 이준호(상 65)
 이진영(의 65)
 이창우(공 54)
 이창선(법 57)
 이재진(문 55)
 이택성(공 56)
 이해영(공 56)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이홍표(의 58)
 이희충(공 68)
 임동규(미 57)
 임동호(약 55)
 임문빈(상 58)
 임창희(공 73)
 임춘수(의 57)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동석(문 66)
 장원경(미 73)
 박명근(상 63)
 장정용(미 64)
 전경배(의 75)
 박영옥(사 55)
 전범수(농 71)
 전상욱(사 52)
 전원일(의 77)
 정균희(의 65)
 정병학(농 70)
 정수만(의 66)
 정신(대 92)
 정연용(상 63)
 정여현(상 63)
 정인환(법 54)
 정정순(사 54)
 정진우(의 66)
 정철룡(의 55)
 정형민(문 71)
 정환(공 64)
 조동준(의 57)
 조만연(상 58)
 조상호(농 51)
 조선주(간 69)
 주영세(사 59)
 지종근(농 56)
 진석희(공 04)
 차중환(사 54)
 최영구(상 61)

최영근(사 57)
 최영순(간 69)
 최용원(공 57)
 최종권(문 59)
 최찬주(간 69)
 추교훈(농 63)
 한동수(의 60)
 한중철(치 62)
 한홍택(공 60)
 한홍동(공 58)
 한기용(문 64)
 홍병각(문 55)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황건홍(공 55)

뉴욕
 강영선(공 50)
 강창홍(의 63)
 고애자(음 57)
 광노섭(문 49)
 광선철(법 55)
 권문웅(미 61)
 권영국(상 60)
 권영대(공 69)
 권정덕(의 58)
 김광호(의 66)
 김정우(미 57)
 김명철(공 60)
 김병권(문 63)
 김석식(의 58)
 김석자(공 61)
 김영길(문 62)
 김영무(공 75)
 김영수(법 66)
 김영숙(약 53)
 김영철(의 55)
 김영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우영(상 60)
 김옥현(의 59)
 김윤수(상 50)
 김정희(간 69)
 김중원(법 57)
 김중권(의 63)
 김진자(간 60)
 김태일(공 68)
 김태호(상 57)
 김해암(의 52)
 김현중(공 63)
 김희국(약 54)
 리준무(음 65)
 문석민(의 52)
 문소자(음 60)
 박건이(문 62)
 박경희(음 57)
 박상(상 55)
 박상원(음 69)
 박승원(법 56)
 박승화(간 69)
 박은규(약 72)
 배상규(약 61)
 배정희(사 54)
 변건웅(공 65)
 변호련(간 63)
 선중철(의 57)
 손갑수(약 59)
 손경택(농 57)
 손규성(사 61)
 손원배(농 70)
 송기인(의 60)
 송윤식(대 69)
 신두식(의 58)
 신의정(음 65)
 신정자(간 62)
 양거영(의 48)
 양명자(사 63)
 오용호(의 66)
 이상영(상 55)
 원인순(문 67)
 유재룡(공 58)
 유재섭(공 65)
 유택상(문 58)
 유호근(문 73)
 옥순재(의 63)
 윤영섭(의 57)
 윤인숙(간 63)
 윤중숙(약 66)
 윤철(문 54)
 윤현남(공 64)
 이강욱(공 70)
 이강홍(상 60)
 이명준(공 72)
 이문봉(미 76)
 이상근(상 84)
 이상무(의 56)
 이상원(농 62)
 이성구(약 56)
 이승일(대 66)

이영일(의 60)
 이영재(상 58)
 이영희(미 68)
 이윤용(공 62)
 이형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음 64)
 노상규(공 60)
 민병덕(상 69)
 박경옥(약 63)
 박서규(법 54)
 박성수(공 59)
 박영옥(사 55)
 박정규(간 76)
 손창순(공 69)
 신규명(공 64)
 심영춘(수 64)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우정호(의 67)
 유승일(의 59)
 윤성희(사 58)
 이강우(문 59)
 이민영(문 57)
 이성원(공 65)
 이정남(공 63)
 임승패(문 66)
 임정란(문 76)
 권철수(의 68)
 김내도(공 62)
 김동훈(법 56)
 김안정(문 59)
 김영기(공 73)
 김용덕(의 53)
 김중구(수 73)
 김태형(의 57)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향순(음 68)
 백낙영(상 61)
 백성식(약 57)
 서광모(공 65)
 손중수(의 50)
 송용덕(의 57)
 신동현(농 49)
 양정자(간 61)
 오경호(수 60)
 유성무(상 66)
 임수암(공 60)
 정선휘(공 65)
 정양수(의 60)

워싱턴DC
 강길중(약 69)
 고무원(법 57)
 권영수(문 65)
 권철수(의 68)
 김내도(공 62)
 김동훈(법 56)
 김안정(문 59)
 김영기(공 73)
 김용덕(의 53)
 김중구(수 73)
 김태형(의 57)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향순(음 68)
 백낙영(상 61)
 백성식(약 57)
 서광모(공 65)
 손중수(의 50)
 송용덕(의 57)
 신동현(농 49)
 양정자(간 61)
 오경호(수 60)
 유성무(상 66)
 임수암(공 60)
 정선휘(공 65)
 정양수(의 60)

시카고
 고병철(법 55)
 김갑중(의 57)
 김동희(공 66)
 김병운(문 65)
 김성일(공 68)
 김승주(간 69)
 김용주(공 69)
 김윤하(공 66)
 김인섭(문 68)
 김정수(문 69)
 김정주(문 60)
 김정화(음 56)
 김현주(문 61)
 김호범(상 69)
 남성희(의 56)
 노영희(의 62)
 민영기(공 65)
 박병기(농 61)
 박정일(의 61)
 박중희(의 69)
 박창욱(공 56)
 서상현(의 65)
 소진문(치 58)
 송재현(의 46)
 신석균(문 54)
 안은식(문 55)
 연경자(약 65)
 유기정(간 72)
 윤경순(사 61)
 윤덕상(치 62)
 안영학(문 57)
 이권희(공 69)
 이덕수(문 58)
 이동균(공 75)
 이봉수(간 69)
 이소희(간 68)
 이승자(사 60)
 이시영(상 46)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이용락(공 48)
 이정일(농 57)
 이종일(의 65)
 임복경(문 56)
 임영신(의 52)
 임현재(의 59)
 장윤일(공 60)
 정승규(공 60)
 조대현(공 57)
 진보린(약 56)
 최희수(문 67)
 한경진(상 59)
 한의일(공 62)

루키마운틴스
 위장호(의 67)
 표헌승(치 58)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변우진(문 81)
 김경순(사 61)
 성운진(치 87)
 송세진(치 78)
 이창재(문 61)
 주한수(수 62)
 차재호(농 84)

미시간
 강신조(공 62)
 김재석(의 61)
 김정화(음 56)
 김희주(의 62)
 박천자(사 64)
 오동환(의 65)
 이민우(의 61)
 이성길(의 65)
 이재승(의 55)
 조문희(공 56)
 하계현(공 64)

북가주
 강재호(상 57)
 강정수(문 61)
 권오형(사 61)
 김광환(농 63)

김명환(문 67)
 김옥경(음 69)
 김은용(공 62)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음 64)
 노상규(공 60)
 민병덕(상 69)
 박경옥(약 63)
 박서규(법 54)
 박성수(공 59)
 박영옥(사 55)
 박정규(간 76)
 손창순(공 69)
 신규명(공 64)
 심영춘(수 64)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우정호(의 67)
 유승일(의 59)
 윤성희(사 58)
 이강우(문 59)
 이민영(문 57)
 이성원(공 65)
 이정남(공 63)
 임승패(문 66)
 임정란(문 76)
 권철수(의 68)
 김내도(공 62)
 김동훈(법 56)
 김안정(문 59)
 김영기(공 73)
 김용덕(의 53)
 김중구(수 73)
 김태형(의 57)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향순(음 68)
 백낙영(상 61)
 백성식(약 57)
 서광모(공 65)
 손중수(의 50)
 송용덕(의 57)
 신동현(농 49)
 양정자(간 61)
 오경호(수 60)
 유성무(상 66)
 임수암(공 60)
 정선휘(공 65)
 정양수(의 60)

샌디에고
 김영애(사 56)
 오계환(공 64)
 박인영(사 58)
 이휘영(법 59)

함성택(문 55)
 홍청일(약 57)
 황치룡(문 65)

알레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계지영(문 60)
 김상수(상 67)
 박희진(농 78)
 최용성(의 55)
 한국남(공 57)
 한영준(사 60)

오하이오
 김동광(공 62)
 김태웅(의 61)
 서의원(공 66)
 송용재(의 63)
 이수자(공 62)
 이영웅(의 56)

워싱턴DC
 강길중(약 69)
 고무원(법 57)
 권영수(문 65)
 권철수(의 68)
 김내도(공 62)
 김동훈(법 56)
 김안정(문 59)
 김영기(공 73)
 김용덕(의 53)
 김중구(수 73)
 김태형(의 57)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향순(음 68)
 백낙영(상 61)
 백성식(약 57)
 서광모(공 65)
 손중수(의 50)
 송용덕(의 57)
 신동현(농 49)
 양정자(간 61)
 오경호(수 60)
 유성무(상 66)
 임수암(공 60)
 정선휘(공 65)
 정양수(의 60)

시카고
 고병철(법 55)
 김갑중(의 57)
 김동희(공 66)
 김병운(문 65)
 김성일(공 68)
 김승주(간 69)
 김용주(공 69)
 김윤하(공 66)
 김인섭(문 68)
 김정수(문 69)
 김정주(문 60)
 김정화(음 56)
 김현주(문 61)
 김호범(상 69)
 남성희(의 56)
 노영희(의 62)
 민영기(공 65)
 박병기(농 61)
 박정일(의 61)
 박중희(의 69)
 박창욱(공 56)
 서상현(의 65)
 소진문(치 58)
 송재현(의 46)
 신석균(문 54)
 안은식(문 55)
 연경자(약 65)
 유기정(간 72)
 윤경순(사 61)
 윤덕상(치 62)
 안영학(문 57)
 이권희(공 69)
 이덕수(문 58)
 이동균(공 75)
 이봉수(간 69)
 이소희(간 68)
 이승자(사 60)
 이시영(상 46)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이용락(공 48)
 이정일(농 57)
 이종일(의 65)
 임복경(문 56)
 임영신(의 52)
 임현재(의 59)
 장윤일(공 60)
 정승규(공 60)
 조대현(공 57)
 진보린(약 56)
 최희수(문 67)
 한경진(상 59)
 한의일(공 62)

김성열(치 61)
 김인배(수 59)
 김재훈(공 72)
 김형록(간 63)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변종혜(법 58)
 신재무(사 77)
 안승적(농 59)
 양용관(수 62)
 윤석진(문 64)
 윤태근(상 69)
 이길승(상 57)
 이순모(공 56)
 이상춘(공 52)
 이원섭(농 77)
 이희백(의 55)
 장대홍(공 65)
 장현길(공 60)
 전병택(상 65)
 정영자(사 56)
 최준한(농 58)

유타
 김용재(의 60)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기춘(공 61)
 김명숙(농 58)
 김영서(상 54)
 김용건(문 48)
 김중구(수 73)
 김태형(의 57)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향순(음 68)
 백낙영(상 61)
 백성식(약 57)
 서광모(공 65)
 손중수(의 50)
 송용덕(의 57)
 신동현(농 49)
 양정자(간 61)
 오경호(수 60)
 유성무(상 66)
 임수암(공 60)
 정선휘(공 65)
 정양수(의 60)

캐롤라이나
 김기현(문 52)
 마동일(의 57)
 이법세(의 63)
 이종영(음 58)
 정신호(사 78)
 한광수(의 57)
 홍훈(자연 75)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라찬국(의 57)
 신경호(의 57)
 유철정(약 61)
 최창승(의 52)
 최창승(의 58)
 홍성휘(공 56)

콜로라도
 이정화(의 61)

테네시
 김경덕(공 75)
 서갑식(공 70)
 임효순(간 71)

텍사스
 박석규(간 59)
 박유미(약 62)
 박진성(의 67)
 박태우(공 64)
 배영섭(의 54)
 송요한(문 73)
 유한창(공 69)
 유희(농 56)
 이경화(공 56)

이석호(농 78)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천양곡(의 63)
 최관일(공 54)
 최성호(문 58)
 최용천(의 53)
 최희기(공 71)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동한(문 53)
 김성준(의 55)
 김재석(의 66)
 박창익(농 64)
 안창현(의 55)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전영자(미 58)
 조경호(의 66)
 최준진(의 63)
 최준희(의 58)
 한성수(의 54)
 황현상(의 55)

필라델피아
 강중철(사 59)
 강영자(치 63)
 길정숙(사 53)
 김경숙(문 59)
 김경희(가 71)
 김국간(치 64)
 김규화(상 63)
 김상천(농 64)
 김재술(약 58)
 김정현(공 68)
 김진진(법 54)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문대욱(의 67)
 배성호(의 65)
 서중민(공 64)
 성기호(상 59)
 송성균(공 50)
 송성익(문 59)
 신선자(사 60)
 심완섭(의 69)
 안세현(의 62)
 염종열(미 81)
 오진석(치 56)
 윤정나(음 57)
 이규호(공 52)
 이만택(의 52)
 이상숙(생 74)
 이승공(의 63)
 이치준(미 57)
 정신호(사 78)
 전무식(수 61)
 전방남(상 73)
 전희근(의 54)
 정덕준(상 63)
 정용남(문 60)
 정태광(공 74)
 라찬국(의 57)
 정홍택(상 61)
 조영호(음 54)
 조영현(수 58)
 주기목(수 68)
 차호순(문 62)
 최중무(상 63)
 최현태(문 62)
 최동휘(문 57)
 한용오(대 69)

하와이
 김달욱(사 55)
 이재형(수 61)
 최경윤(사 57)
 하인환(공 56)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김용환(공 71)
 박태우(공 64)
 이상강(의 70)
 정민재(농 70)
 최은관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광고후원금

일반후원금

남가주	전낙관 (시60)	75
강신용 (사73)	전원일 (의77)	75
구철희 (의78)	정근희 (의65)	10,000
권기상 (대72)	정신 (대92)	1,000
김동석 (음64)	정재훈 (공64)	260
김병연 (공68)	최용완 (공57)	100
김새담 (법55)	최종권 (문59)	220
김영 (수63)	한귀희 (미68)	2,000
김영봉 (사60)	한홍택 (공60)	200
김영중 (치66)	뉴욕	
김영희 (간54)	강창홍 (의63)	50
김은숙 (미62)	고애자 (음57)	50
김은중 (상59)	권영국 (상60)	200
김중섭 (문66)	금영천 (약72)	1,000
노명호 (공61)	김명철 (공60)	200
박우선 (공57)	김완주 (의54)	75
박원준 (공53)	김은희 (간78)	200
박은숙 (미62)	김중권 (의63)	200
박중수 (수58)	리준우 (음65)	200
박혜란 (음72)	문석면 (의52)	200
방석훈 (농55)	박순영 (법56)	75
성주경 (공68)	선종철 (의57)	100
송영두 (공59)	이강홍 (상60)	200
신영찬 (의63)	이재택 (법60)	75
안혜정 (생77)	이전구 (농60)	500
오찬수 (약57)	조남천 (사59)	350
오홍조 (치56)	차수만 (약71)	300
이명선 (상58)	최한용 (농58)	1,500
이법식 (공61)	한승순 (간70)	150
이병준 (상55)	허선행 (의58)	200
이소희 (의61)	홍종만 (공64)	200
이장길 (치63)	미시간	
이창신 (법57)	김희주 (의62)	225
장동석 (문66)	오동환 (의65)	200
	이성길 (의65)	100
	이재승 (의55)	75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62)	500
북가주	
한상봉 (수67)	500
샌디에고	
이휘영 (법59)	75
시카고	
김현주 (문61)	100
소진문 (치58)	200
이영섭 (수56)	75
이용락 (공48)	1,000
정의철	250
최희수 (문67)	100
한경진 (상59)	200
오레곤	
김상순 (상67)	200
텍사스	
이석호 (농78)	200
진기주 (상60)	500
황명규 (공61)	200
플로리다	
임필순 (의54)	200
조경호 (의66)	200
필라델피아	
이만택 (의52)	200
이승공 (의63)	200
정태광 (공74)	100
하트랜드	
고 차봉희 (의51)	500
이상강 (의70)	10,000
최은관	500

워싱턴DC

강길종 (약69)	200
고무환 (법57)	200
권철수 (의68)	200
김동훈 (법56)	200
김응환 (치88)	200
남옥현 (경84)	1,000
박평일 (농69)	400
박홍우 (문61)	200
백순 (법58)	200
석균범 (문61)	200
오인환 (문63)	600
유영준 (의70)	175
이건형 (수54)	25
이내원 (수58)	75
이선구 (문65)	275
이연주 (치88)	200
정평희 (공71)	200
조화유 (문61)	75
워싱턴	
민영기 (공65)	75
조지아	
정양수 (의60)	25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 (의73)	388
캐롤라이나	
한광수 (의57)	500
커네티컷	
김기훈 (상56)	200
최창승 (의52)	2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81)	240
고석자 (인72)	600	
김경무 (공69)	400	
김양희 (음77)	1,200	
김원탁 (공65)	240	
김은중 (상59)	600	
김자성 (의79)	1,500	
김정빈 (공66)	500	
나두섭 (의66)	200	
미주동창회 (11대)	1,000	
미주재단	3,000	
민일기 (약69)	500	
박수경 (생84)	1,500	
박재환 (문75)	600	
박찬호 (공58)	300	
서동영 (사60)	240	
서치원 (공69)	2,500	
안혜정 (생77)	200	
이기준 (법54)	500	
이범모 (치74)	250	
이원택 (의65)	1,200	
이종묘 (간69)	240	
임춘택 (상68)	400	
정재훈 (공64)	240	
주영세 (사59)	400	
차민영 (의76)	1,500	
최홍준 (수81)	400	
한효동 (공58)	300	
홍훈정 (음70)	400	
뉴욕		
김승호 (공71)	1500	
이전구 (농60)	240	
워싱턴DC		
남옥현 (경84)	9,30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53)	300
한홍택 (공60)	50,000	
시카고	이용락 (공48)	300
워싱턴DC	워싱턴DC (0)	-4,0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57)	300
박원준 (공53)	700	
이범모 (치74)	200	
홍선일 (공71)	100	
워싱턴DC	권철수 (의68)	100
워싱턴주	이원섭 (농77)	150
Brain Network		
시카고	이용락 (공48)	200
지부분담금		
워싱턴DC	워싱턴DC	20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 (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150 (2021. 7 ~ 2023. 6) <input type="checkbox"/> \$3,000 (종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 (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480 (2021.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snuausa30@gmail.com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재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Payable to SNUAA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명: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_____		
주소: _____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r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복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양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이경희(인문대 83)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213-385-4646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duouusa.net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고문: 김종섭(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명예회장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우(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사무장: 홍선례(음)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섭외국장: 안혜정(생)
 ▷문화국장: 홍선례(음)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한정희(미), 허유선(가)

논설위원

▷정태영(문), 문성길(의), 박평일(농), 정홍택(상), 김지영(사), 박제환(문), 강신용(사), 이종호(인), 김학천(치)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 이메일 news@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차기 회장 김경무(공대68)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236)513-0376 snuainvan@gmail.com sphro17@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미시간 MICHIGAN (Jan~Dec)
 정무형(문 70) T: (213)458-4969 chung0520@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chocha@yahoo.com
 차기 회장 옹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김기덕(문리 74) golfkiduk200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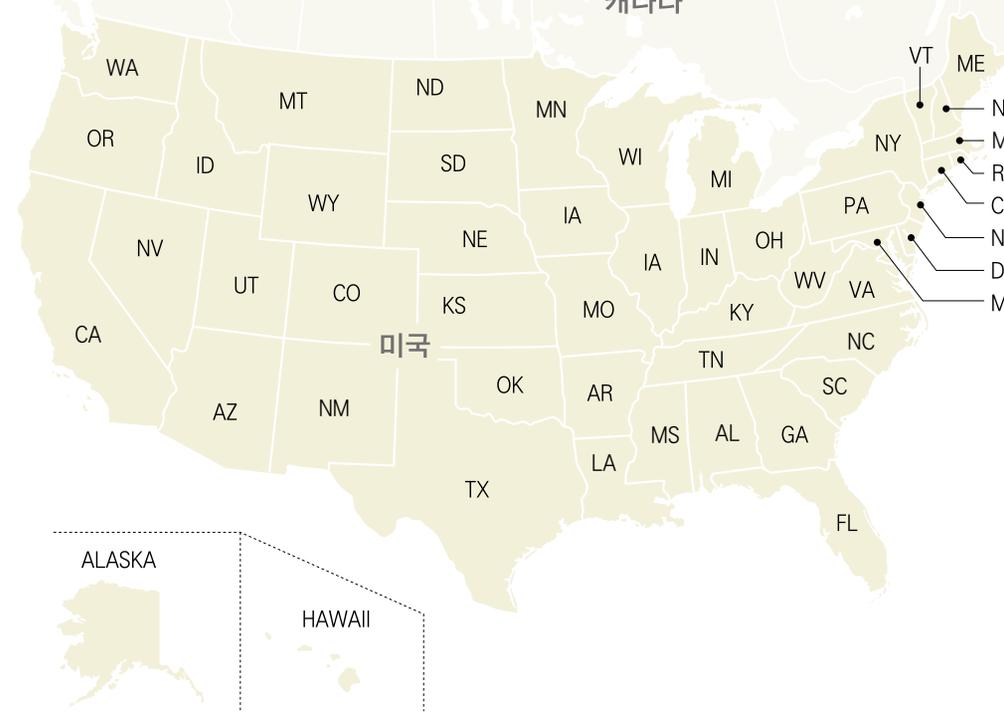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시카고 IL/IN/WI/MI (Jan~Dec)
 회장 김승주(간호 69) T: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차기 회장 황치룡(문리 65) T: (847)895-2814 chi.whang@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김유경(음대 72) T: (781)223-4411 YkimLC@yahoo.com
 차기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샌디에이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김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이명자(간호 74) T: (206)218-8887 drmalee@gmail.com
 차기 회장 하혜숙(간호 77) T: (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808)956-26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커네티컷 CT
 박용희(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텍사스 LA/DALLAS (Jan~Dec)
 강성호(수의 81) T: (214)215-4447 oah9999@yahoo.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이성숙(가정 74) T: (610)417-4789 ssh1120@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오윤환(공대 56) T: (520)271-2601 youn.oh@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산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들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차민영(의대76)

인생 후반 건강지킴이

야구에서는 구원투수!
메디케어 HMO는
서울 메디칼 그룹!

인생 후반, 시니어 분들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의료 혜택의 선두주자
서울 메디칼 그룹이 있어
야구의 구원 투수처럼
건강도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건강 스트라이크 ~

주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

코리안 특급
박찬호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Fairway Asset Corporation *You Can Trust*

남욱현(경영대 84)

“ 웃음 가득한 편안한 가정,
Fairway Asset Corporation 이 함께합니다.”

가정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모기지 페이먼트,
단순한 용자 서비스를 넘어서, 건전한 가정경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Fairway Asset Corporation 은 워싱턴 지역 Lender 로서
고객의 편의, 최저의 이자율, On Time Closing Service 를 위해
License 를 갖춘 용자 전문가들이 고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익의 사회환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www.facloan.com NMLS#293044(www.nmlsconsumeraccess.org)

• VA License No. MC5452 • MD License No. 183469 • DC License No. MLB293044 • DE License No. 019327 • NC License No. L-169942 • GA License No. 60069
• PA License No. ML48710 • NJ License No. 293044 • CA License No. 603J584 • IN License No. 27916 • CO License No. 293440 • AL License No. 22538
• IL License No. MB 6781371 • FL License No. MLD1737 • TN License No. 178973 • TX License No. 293044

Maryland Office

301-279-6969

15400 Calhoun Dr. #120, Rockville MD 20855

Fairfax Office **703-204-0022**

Annandale Office **703-256-6002**

Centreville 지역 **703-371-8343**

Ellicott City 지역 **301-279-8662**

Silver Spring 지역 **301-456-9962**

DE & PA 지역 **267-275-9439**

NJ 지역 **201-888-7456**

NC 지역 **917-418-3587**

Richmond 지역 **703-309-5755**

GA(Atlanta) 지역 **404-578-1426**